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東京事態는 遂强行解決에!

號外再錄

叛徒側의 復歸不應 武力으로强力鎭壓

不幸히交火해도地域局限

戒嚴令司令部發表

【大阪電話】告諭第二號=戒嚴司令部發表=본직은 이에 계엄령(戒嚴令)제 십사조전부를 적용하여 단호코 남부국정구(南部麴町區)부근에서 소요를 이르킨 반도(叛徒)의 진압을 기한다。 그러나 그 지역(地域)은 좁고 적어서 파급이 크지안흘것이 짐작되므로 관민일반은 압서 고유에 표시한병력 출동의 목적으로 잘 리해하고 특히평정하기를희망함。

소화십일년이월 이십구일 戒嚴司令官 香椎 浩平

(寫眞은 香椎司令官)

不幸한事態를避코저 再三再四復歸를說諭

【東京電話同盟】향퇴(香椎)계엄사령관은 이십구일 일흔 아츰『라디오』로 다음과가튼 고유를 발하엿다—

告諭第四號=戒嚴司令部發表= 이십륙일아츰에 궐기한 부대에 대하여 각각 그소속 사단(師團)에 도라갈것을 각장관으로부터 가진수단을 다해서 성의껏 재삼재사 일럿스나 그들은 끗내 이것을 듯지안키에 이르럿다 대저 이러난 부대에대하여 조처할시일의 천연(遷延)을 감히하게된 까닭은 만약 이진압을 하기위해서 가경한 수단을 취하여 불행한 사태를 비저내게함에는 그사단 지역에는 궁성(宮城)을 비롯해서 황족(皇族)、왕족(王族)등 귀저(貴邸)에 밧드러 몃칠 두려움도잇고 또 그박게 지역에는 외국공관(公館)도잇서 이러한 정세에 밋치게됨은 국력이를 회피하지안홀수 업슬뿐아니라 황군(皇軍)이 서로 투쟁하는것은 국군(國軍)의 정신상 참으로 참지못할것이 잇스므로써이다。 그러나 한갓 시일만을 천연식히고 그러고도 치안유지의 확보를 문란한다。 실로 공구해서 견딜수업는일이므로 상주(上奏)하여 칙(勅)을 밧드러 현재 자세(姿勢)를 거두고 각각 구역에 복귀할명령을 어제 전달햇든바 그들은 아직도 이것을 듯지안코 맛츰내 칙명(勅命)을 거역하게되엿다。 일이 이미 이에이르러 드듸여 할수업시 무력으로써 사태의 강행 해결을 하기로 결하엿다。 이에 관하여 불행히 병화(兵火)를 겨누게될 경우에 잇서서 그때에는 국정(麴町)영전정(永田町)부근의 한 완전한지역에 한정될것이므로 일반민중은 한갓 류언비어 에혹하지말고 힘써 잇는곳에 안정하기를 희망한다。

이월이십구일 戒嚴司令官 香椎 浩平

事件關係將校團 十五名全部免職

【東京電話同盟】이번사건의 관계장교에게 대하여 이십구일다음과가튼 면관(免本官)의 사령이 내각(內閣)으로부터 발표되엿다。

陸軍步兵大尉 香田淸貞
同 安藤輝三
同 野中四郞
同中尉 中橋基明
同 栗原安秀
同 丹生誠忠
同 坂井直
同砲兵中尉 田中勝
同步兵中尉 林八郎
同 池田秀彥
同 高橋太郞
同 麥屋淸濟
同 常盤稔
同 淸原康平
同 鈴木金次郞
免本官

東京、大阪間의 電話線殆杜絶

【大阪電話同盟】이십구일동경、대판간을 련락하는 전화선 백수십회선이 전부 정지되야 동경 대판가지간에 통화는 두절되고 다만 경찰전화가 겨우 통하고잇을뿐이라 기타 지방의 전화도 대부분 정지되엿다

國內通信不違解除

【東京電話同盟】=戒嚴司令部發表=첫째—치안의 회복도 가까우리라고 생각하며 멀지안하국내통신의 금지는 해제될예정이다 둘째—피난자의 귀환은 평온하다。 피난자의 귀환(歸還)시기는 다음에 명령이잇슬것이므로 무단귀환을 금지한다。

大阪은平穩

【大阪電話同盟】대판부 경찰부(大阪府警察部)에서는 이십구일 오전열한시반 부전(富田)부장의 담화로 다음과가튼 발표를햇다

동경사건에대하여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종종발표되여잇는데 그치안도 일소부분을 제하고는 일반치안은 평정을보전되고잇다 대판에서는 종래부터 한층사고도업고 오늘도 수형교환소(手形交換所)、은행、그밧게 각방면은 평소와 변함업시 영업을 계속하고잇는상태인즉 부민들도 랭정한태도로 각각그업무에 종사하기를 바라는바이다

市民의注意할點 戒嚴司令部發表

【戒嚴司令部發表】이십구일 국정구(麴町區)의 남부 부근에서 다소의 위험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나 기타의 지역은 위험의 넘려가 업다고 판단된다 서면은 계엄령하의 군대에 의뢰하야 엄숙랭정히 사령의 지도에 복종하고 특히 아래의 주의를 엄수하라 一、따로히 주의식힐 시긔까지 외출을 기다리고 특히 자택에 잇서서화재예방에주의 하라 二、특별한 포령이잇슬 지역외에 피난하여서는 안된다 三、덕의적확한 정보나 지시를 라듸오와 다른방식에의하여 제시할것임으로 류언비어에 혹하지말고 항상 이를주의하라

昭和十一年二月二十九日 戒嚴司令官 香椎 浩平

그리고 피난을 요할지역은 삼택(三宅坂)적판견부(赤坂見附)호지문(虎之門)앵전문(櫻田門)을 련한 시전선로에 포함된 구역이다

飛行機와戰車로 說服삐라를撒布

戒嚴司令部發表

【戒嚴司令部發表】=午前十時五十五分=一、재열사단(第一師團)방면에서는 반란군(叛亂軍)에 대하여 전차(戰車)를 파견해서 병사세득(兵士說得)의『삐라』를 산포하엿다

二、비행기로 병사세득의『삐라』는 의연계속해서 뿌려고잇는중이다

三、오늘 아츰 피난을 명하여 퇴거한 사람의 재산(財產)은 계엄부대의 진출에딸어 헌병과 경찰관으로하여금 점차보호에 당하고잇는중

四、다행히 지금에 이르기까지 병화(兵火)를 대이지안헛다。

約四百名은歸順 尙今兵火相交는업다

◇戒嚴司令部當局談=이십륙일이래 부대를거나리고 영전정(永田町)부근을 점거한 일부청년장교는 봉칙명령(奉勅命令)이 나리엇슴에도 불구하고 이에 복종하지안코 드듸어 반도(叛徒)가되고말앗다 이들 청년장교 에대하야는 사흘동안을두고 륙군대신、계엄사령관、사단장련대장 기타륙군 수뇌부로부터 주야겸행하야 열성으로 원래소속한 부대로 돌아가기를 권하얏다 처음에는 이에 복종하는듯한 형세도 뵈인것이 한두번이 아니나 돌연히 전에한말을 번복하는등 마침내 봉칙명령에 반긔를 들엇슴은 심히 유감된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느리고잇는 병사들은 아모사정도 모르는자가 만흠으로 오즉 장교의명령에 의하야 끌리어나온자가대부분이다 그들을 반도로 본다는것은 진실로 참기어려운 일임으로 금일까지 이들 병사에게 대하야 각기 상관즉 사단장 련대장등으로부터 순순히 리치를 설명하엿스나 그들은 이를 듯지아니함으로 어제밤이래 세득서(說得書) 비라등을 뿌리고 오늘 아츰에는 비행긔로 비라를 뿌리고도 교통긔관과 전신전화로써 모든수단을 다하야 진무에노력중이다 이에 의하여 어제밤부터 오늘아츰에 걸치어 하사관(下士官) 백수십명의 귀순자(歸順者)가 잇섯는바 오전구시경에 다시 적판 산왕(山王)호텔 부근에서 약 백오십명(赤坂)부근에서 약이십명、오전 구시이십분경 적판류지(赤坂溜池)부근에서 약 백이십명의 귀순자가 잇섯다 이대로가면 금후 계속하야 귀순자가 잇스리라고생각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병화(兵火)를 이르키지는 아니햇다

撒布삐라의全文

【東京電話同盟】향퇴(香椎)계엄사령관이 반란군에게 대하여『병사에게고함』이라고해서 산포한『삐라』의요지는 다음과가다

『병사에게고함』

칙명(勅命)이발포되엿다。이미천황폐하의 어명령이 발한것이다。너이들은 상관(上官)의 명령을바른것이라밋고 절대복종해서 성심성의활동해온것이나 이미천황폐하의어명령에 의하여 너이들은 모다원대(原隊)에 복귀하여라。이아상어데까지 저항한다면그것은칙명에 반항하는 것이되여서 역적(逆賊)이 되지안흐면 안되게된다。바른일을 햇다고 밋고잇섯든것이 잘못되엿다는것을알엇다면 한부로 지금까지의 진행과 의리로 언제까지든지 반항적태도를 고집하여서는 천황폐하께 배반되는것이되여 역적의 더러운일홈을영구하게 바더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귀순해도 늣지는 안타 곳 저항하는것을 끈치고원대에 복귀하도록하라 지금까지의 죄는용서해줄터이다 너이들의 부형은물론이요 국민전체도 그리하기를 빌고잇다。속히현재의 위치를바리고도라오라

戒嚴司令官 香椎中將

叛亂隊全部歸順

【二十九日午後三時라듸오】戒嚴司令部發表=반란대(叛亂隊)는 오후一시경에 이르러 전부 귀순하야 사건은 이에 완전히 진정을보앗다

平定은在邇

【東京電話同盟】=戒嚴司令部發表=수상(首相)관저와 및산왕(山王)호텔에잇는 극히 적은부대(部隊)를 제한반란부대의 하사관병의 거지반전부는 그다지저항하지안코 귀순하엿스므로곳 반란의 진정을 보게될것이다

橫濱、川崎兩驛은 乘客으로大混雜

【橫濱電話同盟】동경의중대사건으로 렬차는 황빈(橫濱)역전차는 천긔(川崎)역에서 정거하야 동경으로가는승객은 전부이 두역에서 내림으로 이두역은모다대혼잡을 일우고잇다

人事·集會

▲李世楨氏(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敎務主任)音樂會後援人事次來社
▲金永煥氏(海昌洋行藥劑師)開業人事次來社
▲黃紀秀氏(海昌洋行支配人)同上
▲朴奎緖氏(海昌洋行營業課長)同上

八面鍼

◇佛蘇條約批准案 佛國下院에서 可決하야 上院으로廻付。
◇歐洲情勢에 對蘇關係는 勿論이나 極東關係에는 影響이 업슬것인가。
◇甲午 甲辰兩戰役의 佛國과露國關係를 回想한다하면、
◇滿蘇國境이 不安한 오늘날에 歐洲의 新情勢도 等閑視할수는 업는노릇。
◇四國軍縮協定에 伊太利가 調印하기를 拒絕。
◇調印해도 空文書로 될것이 아니라 拒絕함이 正直한 態度라할가。

號外三回發行

今日東京事件으로 本社에서는三回의 號外를發行하얏습니다

◇取消=昨紙朝刊第一面「行動隊撤歸準備?」라題한記事中「同

温突改良의權威! 新案特許愛林竈!! 近日中發賣開始!!!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實驗發表 官廳·團體·個人·豫約注文遝至
朝鮮愛林商會 京城府光化門通一二〇 光化門ビルデイング
代理店·特約店 至急募集·運賃料添付要照會 案內書親展送呈·面談歡迎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入院隨意 診察

普成高普校友會 來三月三日午後一時에第十四回卒業式을擧行하오며 校友諸氏는多數往臨을敬要、式後에校友會總會가有함

來三月二日午前十一時本校에서卒業式을擧行하옵고式後에校友會總會를開催코자하오니 校友諸氏는撞萬 往臨하심을務望 徽文校友會長 李炳奎 白

당채색 (商標送呈)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〇 振替京城

廣告 株式會社十八銀行은 二月末日限京城、龍山、新龍山、仁川、群山、木浦、羅州、釜山、元山各支店의營業을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에讓渡하여朝鮮殖産銀行은右各地에本支店又는出張所에서十八銀行의業務를繼承營業키로決定여기玆廣告함 昭和十一年三月一日 株式會社十八銀行 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張道斌先生著 平壤誌 美洋裝 全一冊 定價三圓 平壤府慶上里二〇 平壤商工社 振替京城一三〇一二番

生徒募集 京城中等公民學校 本科(晝夜) 商業專修科 (修業三年)(修業一年)入學資格小學卒業以上 願書受附三月三十一日限 考査四月六、七日 學則送呈 太平通二丁目大漢門橫 電本四七六一番

京城鍾路三丁目 完全修理 時計 普信堂時計舖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 國一館 主 張箕燮 (顧客本位) 電話一九三六番

東洋唯一觀相師 萬人共知姜南月 朝鮮日報京城販賣 電本(2)一

絹織物新春 見本及時勢表進呈 明紬、生紬 平北寧邊城內 寧邊

戒嚴司令部發表事件顚末

【東京電話同盟】=戒嚴司令部發表= 동경에서 이러난 소요는 이미 「라디오」로 방송한바와갓거니와 재재작일즉 이십륙일새벽에 동경에서 이러난 소요는 드듸여 이십칠일 오전두시오십오분에 이르러 계엄령포고가되여 동경경비사령관 향퇴(香椎)중장은 계엄사령관의 대명을배수하고 열심으로 동경의 치안에노력한결과 한때는 시내의일소부분에 교통을두절코을 내엇스나 일반시민에게 대해서는아모고장을 주지안허서 완전히동경의 치안을 유지하엿다 이와가티하여 이십칠、팔 이틀을보내고 나흘째 되는 이십구일에 이르러 아조평정되엿스므로 이에간단한 경과를 발표하는바이다.

이십륙일새벽 돌연폭동을 일으킨부대는 이미보도한바와가티 총리대신저 재등(齋藤)내대신사저、도변(渡邊)교육총감사저、령목(鈴木)시종장사저、고교대장대신사저、목야(牧野)전내대신숙사안 탕원이등옥려관(湯原藤屋旅館)동경조일신문사를 습격하야 강전총리대신、재등내대신 도변교육총감은 즉사하고 고교대장대신은 부상후 훙거한터이다 동경경비사령부에서는 아날오후세시 제일사단관하에 전차경비를 하명하엿는데 이사이에 반란부대는 홍운경시청 홍운신축중의 의사당등 기타에 도려다니다가 적판(赤坂)산왕(山王)호텔에 근거를집고잇다 이계엄령으로 말미암아 진중되군대는 반란부대를 멀리에워싸고 엄중한진용을펴고 반란부대의 한명도빠저나올수업도록하고 다시일층치안의 철저를다하기위하여 계엄령을 시행하기로되여 이를구성한것이다 여가치하여 한번계엄령이 선포되자속속 동경에진중되부대는 군귀업정(軍歸業正)사가(士氣)도현대단하야 왕성하고、때마츰내리는눈(雪)을 무릅쓰고 집합한용사는한엽시 미동도엇는바를 적시만에게 늑기게하엿다 이리하야 이십칠일은 지나고이십팔일이되야 이십팔일밤도 고요히 지나가려하엿다 그러나반란부대는 진정되지안흠으로 계엄사령관은 이십구일 오전여섯시상실로라디오로써 고유(告諭)제사호와가티 발표하엿다 계엄사령부는 단호한 처치를 취하기로 결정헷스나 그들도황군의 정에(精銳)이므로 사력부당국도 될수잇는데까지는 그들의 모양을 보기로한 동시다시 비행기、전화기타의 방법으로 반란병의적극적진부에 노력한결과 위선백수당의 귀순자가 잇는것을 비롯하여 그후 백오십명과 백이십명이 속속 귀순하엿다 향퇴사령관은 이기회를 노치지안코 적당한처치를 강구해서 드되여오전열한시 사실문에 수상관저와 산왕호텔에잇는 재부대를 비롯하야 반란병대 부분은 전부귀순하엿다

意外에도女賊
어둠속의女子

이십팔일 오후 야간시 시내 효자동(孝子洞) 교원(…元)결당포에 시계와은수저등을가지고온 수상한 여자를 조사하려든 경관의 발견하고 이를 불러로 다려고 가라하자 그녀자는 처음은 웃으며 따라오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돌연 도망을 하엿는데 이를 추격하야 효자동(通義)부근에서 붓잡어드며 완강히 저항하는 그녀자를 겨우끌어 적류하엿다 그녀자는 시내 통동에 사는 리순이(李順伊)(二○)란 녀자로서 그의 배후에는 상당한 남자 도적이 숨어 잇는듯 하며 그가 가지고 잇든 장물도 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굿게 입을 다물고 배리고 잇서 발금 엄중히 문초하는중이다

移動中의警視廳員
本廳에復歸
今午總監以下全員

【東京電話同盟】이십구일 경찰서(麴町署)에 본부를두엇든 소률총감(小栗總監)이하 경시청원은 계엄사령부로부터 전지구(交戰地區)가 손안에돌아왓다는 보도를접하고 안심한빗으로 오후령시오십삼분 금정경찰서로부터 앵전문(櫻田門)청사로 돌아갓다

東京中心官營交通機關
運轉總中止를發表
山手線、京濱線、市電等
今朝鐵道省發表

【東京電話同盟】이십구일 오전여홉시십분 철도성발표=오늘아츰 다섯시반부터 다음 각선의 운전을 중지하고 잇다
▲산수(山手)및 적우(赤羽)선은 전부 운전중지 ▲동해선(東海線)은 전차는 천기(川崎)까지 중지 ▲렬차는 횡빈(橫濱)까지 운전을 중지 ▲중앙선(中央線)의 전차는 길상사(吉祥寺)까지 렬차는 팔왕사(八王寺)까지 운전을 중지 ▲동북선(東北線)은 전차는 천구(川口)까지 렬차는 대궁(大宮)까지 중지되여잇다
그박게 이것을 련락하는 교외전차를 비롯하야 성선(省線)내외와 시전시 「빠스」청(靑)「빠스」는 벌서 이미전부 운전을 중지하엿다 (號外再錄)

東京市內小中學校
全部休校를命令!

【東京電話同盟】동경시에서는전지의 소학교、소학교전부를이십구일 휴교시키기로 되여오전다섯시시교육국장(市敎育局長)으로부터 각구장(區長)에게 통달하엿다 구장은 방호단(防護團)으로하여곰 그취지를 각관계교장과시민에게 통달햇다

警戒區域內住民
今朝全部가撤退
公共建物에收容保護

【東京電話同盟】계엄사령부로부터 퇴각을 명령당한 산태파(三宅坂)、적판견부(赤坂見附)、호지문(虎之門)、영전문(櫻田門)등련접한 시전선로(市電線路)일대의주민은 아츰이래로 계속해서린접지에잇는 국정소학교(麴町小學校)、적판송지정소학교(仲之町小學校)、빙천소학교(氷川小學校)、삼회당(三會堂)그박게 큰건축물로 피난햇고 재향군인、청년단、방호단(防護團)원의 노력으로 로인、부녀들도 안전하게 오전아홉시종되여 대체로 피각을 완료하엿는데 식량 그박게 보급(補給)도 충분하다 그리고 동경시일반의치안도 극히 평정을 보전하고잇는중이다

新聞社自動車
通行만은許可

【東京電話同盟】일반시민의 교통은 아조 정지되엿스나 동경시역소(市役所)와 및 신문사의 자동차만은 오전 여섯시지나서부터 통행을 허가하게되엿다

鐵道運行中止
零時부터解除

【東京電話電通】=戒嚴司令部發表(午後零時四十分)=一、철도차는 의연 금지되고잇다 二、동경시내로부터의 전신 전화는 국내통신에한하여 수부의 정지를 해제하엿다。 다만시내전차 자동차의 운행정지는 오후령시부터 해제되엿다。

戒嚴沿道엔
人影이零星

【東京電話同盟】계엄령하의 제삼야―이십팔일 낫지나서 계속하여내리고잇든 눈도 여섯시경에는 끗낫스나 추위가더욱심하여젓다 오후여섯 경계선구역이되여잇는 번화한거리를 일순하여보면 먼저신교역(新橋驛)부터 은좌미장정(銀座尾張町)은 경계선에속하여잇슴으로 자동차와 통행인은 각가운뒤골목으로 조끼여드러가 조곰도 웅숙일수업는정도이다 병사재향군인 경관은 인민을정리하고잇다 경교(京橋)부터 일본교(日本橋)에 일으는 도로는 공휴일로 백화점은 문들닷치고 큰상점 길거리의 「카페」에서도 아홉시경부터 일쪽이 문을닷치고 소매상들도 닷는곳도 잇다 금천소로(今川小路)를 바른편으로놀아서만서 신전(神田)에나가는화적(?)(駿河臺)까지는 적막하고 중의상점도 평상시와 가르나과연다방(茶房)거리는 각모를쓴 학도의 그림자가 살어젓스며 사람의 그림자는 간이 갓사록 사라저간다

石油斷交實行하면
國際孤立도不辭
伊政府의非協力態度를闡明으로
四國協定은成立絶望

【倫敦二十八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新海軍協定案에 參加하기를 拒否하는 同時에 制裁十八人委員會의 決定如何에 依하야는 決定孤立도 不辭하겟다는決意를 表明하야 二十八日午前左와如히 意向을 表明하엿다
一、國際聯盟이 伊太利政府에對하야 侵略國이라는 烙印을 찍은 制裁를 下하는以上 伊太利政府는 如何한 安全保障機構에도 加入할수업다 新海軍協定은 安全保障機構維立에로의 第一步라고 解釋되나 以上의 見地에서 參加를 拒否하엿다
一、다만 海軍制限問題에 관하야는 伊太利 政府로서는 如何한 國際公約에나 參加할수업다 獨逸政府는 로카르노協約을 破棄할境遇 各國政府가 新協約案을 提唱하드라도 伊太利政府로서는 參加를 拒否할따름이다 따라 伊太利政府今回의 措置는 國際孤立政策에로의 第一步라하야 重視되여잇는데 倫敦外交界에서는 伊太利政府가 어데까지 新協力政策을 固執하야 自國을無視하면 歐洲의 安全保障은 維立될수업다는것을 現實로 示할 意向이라고 觀測된다
【倫敦二十八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海軍新協定草案에 對하야 非協力態度를 闡明한 結果 倫

警務局長聲明書

敦海軍會議는 바야흐로 最後의 破局에當하게되엿다 英米佛三國代表는 二十八日朝來 자조局面打開에 努力하고잇스나 四國協定成立은 거이絶望視되여잇다 會議는今後의 動向에對하야 伊太利政府의 態度가 緩和되를 기다려 委員會는 來週까지 暫時形勢를 觀望하라는見解가 相當히 有力하다고解釋하다

東京事件에對하야 池田警務局長은 左와如히 聲明書를發表하엿다
東京事件에關하야 戒嚴司令官은 最後의 鎭壓手段을 取하게되엿合으로 帝都의治安도 압호로數時間以內에 完全히 回復할것이며 各地方은 何事도업시 平穩하다 朝鮮內에잇서서도 今日까지 治安은 完全維持되야 何等事故도업시 靜穩히 經過하고잇는데 다시 軍隊、憲兵隊와도 緊密한 連絡下에 治安維持에 萬全을期하고잇슴으로 流言蜚語에 迷惑되지말고 安心하여주기를바란다 又此際流言蜚語를 流布하는者에對하야는 嚴重한取締를하고 잇슴으로 一般은特히 其言動을謹愼하기를 希望한다

林、眞崎兩大將
前後하야突然參內

【東京電話電通】林、眞崎兩大將은 二十九日午前九時 突然前後하야宮中에參內하엿다

東京交通의 心臟部 東京驛
(總督府警務局檢閱濟)

山언덕이문허저
土工一名이無慘히壓死

【坡山支局電話】파주군림진면선유리(坡州郡臨津面仙遊里)화남리 박부남(朴府男)(二○)은집이 가난하야 우오신전도로로인는 풍사으로 호겨(?) ……

鹿兒島에大火

【鹿兒島電話電通】이십팔일 오후여덜시오십분경에 록아도시남림사정(鹿兒島市南林寺町)삼촌(山村)차랑(次郞)씨부근에서 불이일어나서 때마츰바람이심하야 화세는자못 맹렬하여저서 부근일대교회국과 송원(松原)학교등대건물이잇는 번화한곳으로서 대부분을 일소하엿다고한다

今夜
午後六時半 朝鮮日報大講堂
世界올림픽 力技豫選大會
主催 朝鮮力技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料 普通三十錢 學生二十錢

群山土木談合事件
取調段落近近送局

【群山】과보=지난십오일 마명구를 련행석해오든중 이십칠일 오후한시경에 선유리에서 누구치어 비참히 죽엇다고한다 그마당에 의심되는(?)아 문허저서그는 흙속에 파뭇처 …
군산경찰서사법계형사대는 사방으로 손을나누워 가지고 질풍적으로 군산에잇서 우수한 일본내지인 토목청부업자(土木請負業者)사명을 구검하얏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사건은 동업자간의 알력으로 부터 폭로가된 토목담합(土木談合)사건으로서 그들은 과반 부내 해망정 해면매립공사(海望町海面埋立工事)급 천산정동본원사 신축부지절삭(淺山町東本願寺新築敷地切取)등공사에이서 담합사실이발로되야 그간군산서에서 엄중취조중이던바 일단락을 지엇슴으로 근근검사국으로 넘기리라한다

市內各校卒業式

▲培材高等普通學校 三月二日午後二時
▲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 三月三日午前十時
▲徽文高等普通學校 三月三日午後二時
▲徽新學校 三月二日午前十一時
▲養正高等普通學校 三月三日午前十時
▲東星商業學校 三月四日午前十時
▲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 三月六日午後一時
▲京畿公立商業學校 三月五日午前十時

麥二毛作奬勵로
畑의冬休를全廢
平北道의新試驗

【新義州】평북도농무과에서는거울에도 「밧(畑)을 푸르게하여 서수(瑞穗)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오든바 신입변도부터 종래의 작부방식을 고처 보리(麥)의 일변이작、또는 이변삼작을 장려실시하게되엿는데 계획실시에는 장려품종을 소맥(小麥)은 단간종(短稈種)(水原六八號)、대맥(大麥)은 풍산(豊山)재래종 또는 무산(茂山)재래종으로하고 또 소맥은 당분간 중부철도연선지점에 집주하고 대맥은 상류지점의 포작물로 계통적 채종포(採種圃)를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보급장려를 하기로 결정되엿다 한다。

水王產婦人科 李敦求

天氣豫報

槪況 低氣壓은 日本東海上에잇고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洲、朝鮮에 퍼지고잇다 滿洲와 朝鮮은 개이고 湖南地方은 눈이 若干오다
豫報—京城地方今夜는개이고 明日도개이다 京城全區도가다
昨日最高 零下一度九
同 最低 同 八度四
今朝最低 同 十度八
今日正午 同 七度

肉體及精神的虛弱에對한再建設的强壯劑

네오톤 토닉
NEOTONE TONIC

虛弱하신분은斷然 네오톤 토닉으로健康을恢復식히시라!
現代科學的原理에 符合되도록高貴한諸有效成分을 適當하게配合한世界的의强壯劑 네오톤 토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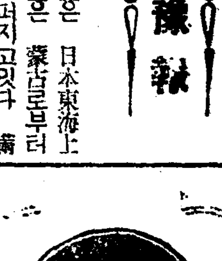
發育促進 食慾增進 血球形成 補肺 神經强壯
適應症
一般虛弱肺結核 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一般疲勞、急慢性氣管支加答兒、産褥營養障碍、傳染病經過後、神經過勞、精神沈鬱狀態、脈搏不振、心臟疾患、스포—츠前後

包裝 一폰드—一個月分 半갈론—四個月分 一갈론—八個月分
本劑에對하야詳細한것은貴下가信用하시는權威잇는醫師에게問議하십시요

文獻及說明書 請求即時送呈

네오톤 토닉 直輸入發賣元 柳韓洋行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라 오 는 순 낼 ……

鮮于一扇 新春特別新譜
新民謠 朝鮮八景歌 新날니리
王平作詞·金駿泳作曲 / 李紀英作詞·…作曲

포리도—루레코—드 (一九二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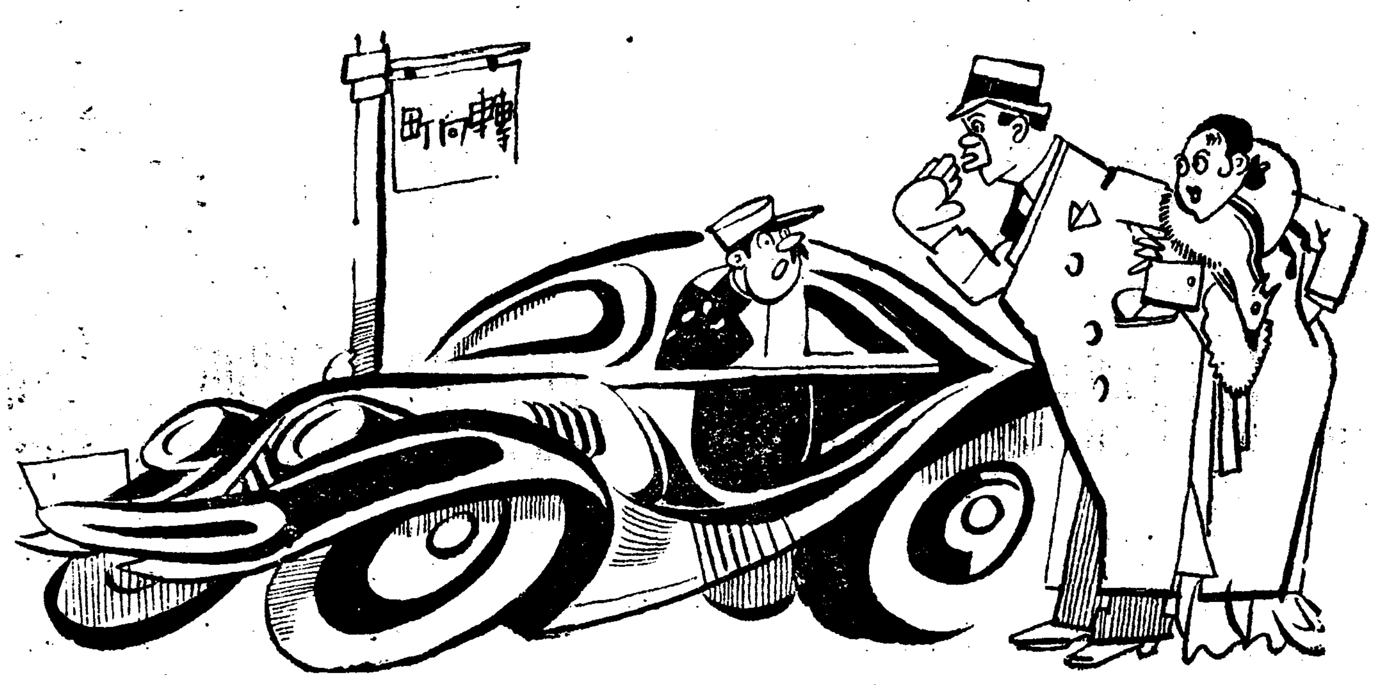
崔議官允粲以宿患不起二月初五日(陰一月初五)午前七時故逝玆以訃告

一、發靷日時 昭和十一年二月初八日(陰一月十六日)午前
一、發靷場所 平壤府上需里九
一、永訣場所 …
一、停柩 晉通…
一、葬地 平原郡漢川本宅後山(先塋)
一、葬禮日時 昭和十一年三月四日(陰二月十一日)正午

昭和十一年二月二十七日

孤子 …
孫 …
…

漫畫朝鮮



轉向!

客:「이自動車石油가 어뎃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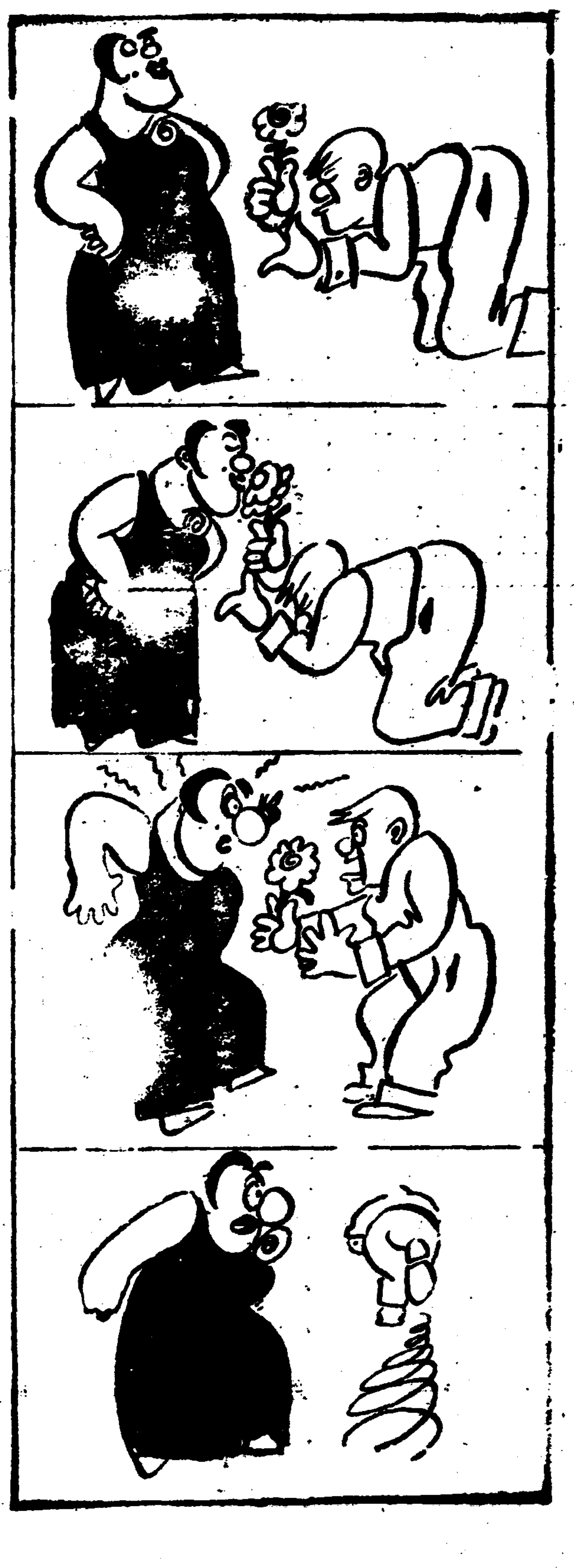
「네! 露西亞 石油랍니다」

「옹! 로서아? 고만두게, 안타겟네」

「멀해요? 얼는 타요」

아무리醉中이나 콩밥냄새나는車야 탈수잇나!

東 阿



彼氏가 失戀한 理由……高[illegible]

彼女가 지은 世界新記錄의 由來……李太周

蘇滿國境

「上官! 이놈이不法越境을 하엿슴니다」

韓用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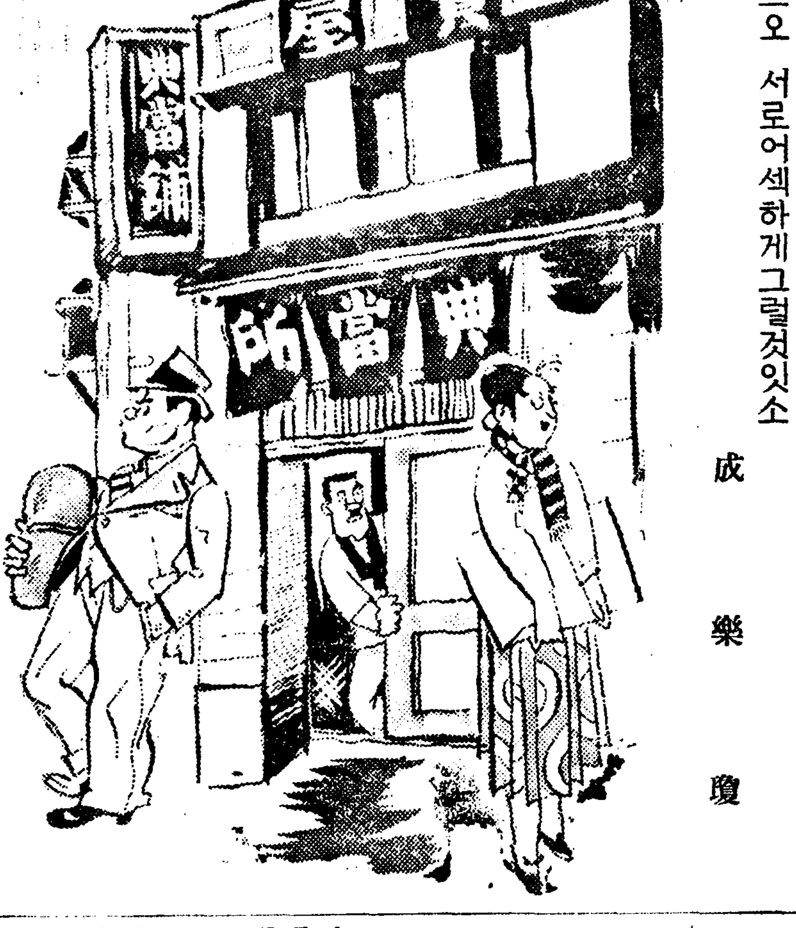
「봄이왓소! 옷을엇더케좀찻도록 해보우 돈이 이마큼잇서 도시의치못하겟스니」

金基源

『손드러라』……金[illegible]

봄이오면 外套는倉庫에다 넛는것이 당신들 生活方程式인줄 누가모르오 서로어색하게그럴것잇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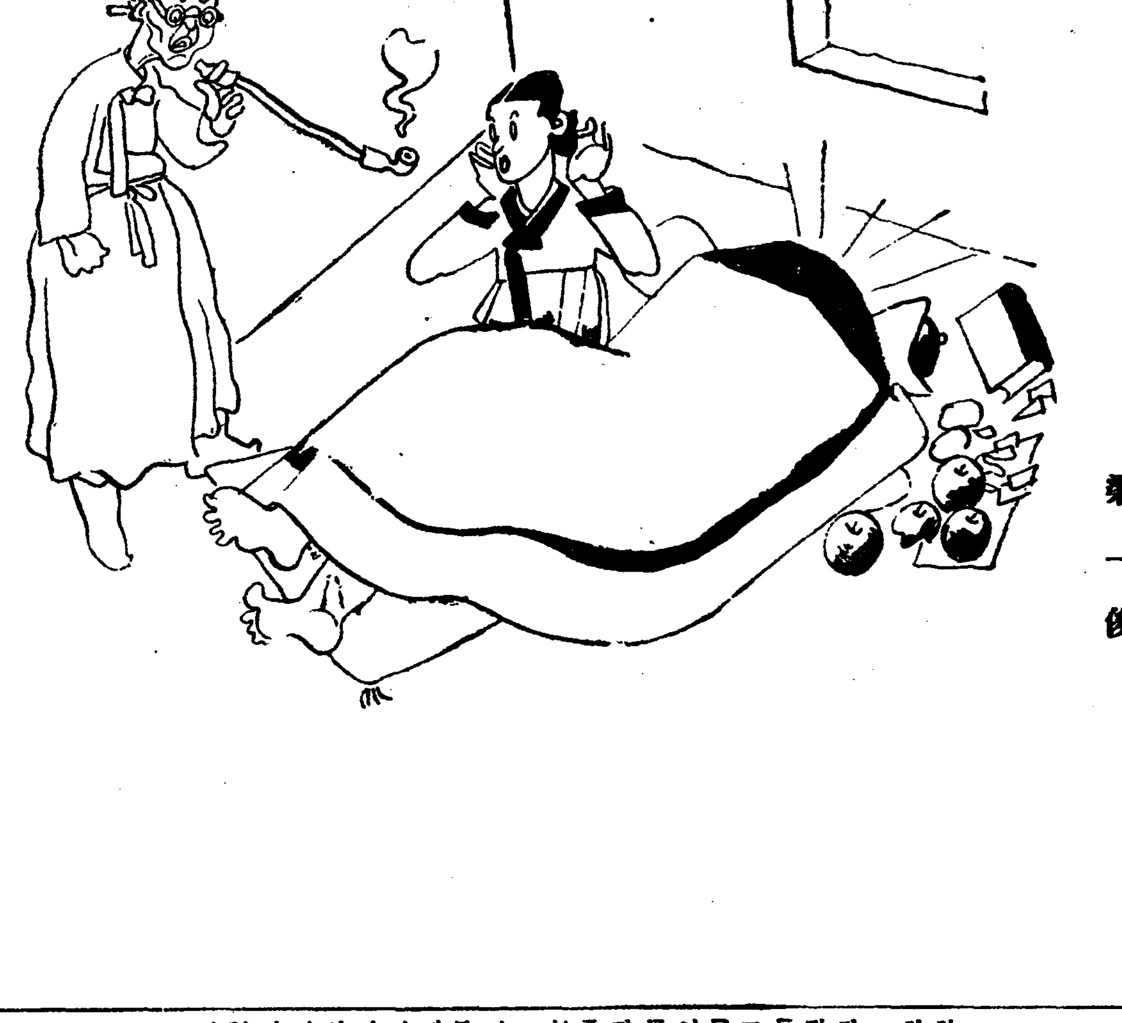
成樂[illegible]



姑婦싸홈은 사나희잘못으로!

「아이 이발이! 어데 이러케 배우지못한것이……」

梁一俊



異次頓의死 【106】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그럴리가 잇나?」

하고 달님은 머리를 도리도리 하며,

「그랫스면 깃브지마는 그럴리가 잇나? 서방님은 벌서 아라한이 되섯는데, 이 세상 모든 욕심 다 떼어버리시고―― 그러매로 그 어른의 눈에는 이몸따위는 더러운 한 고기ㅅ덩어리。사람은 필경 흙 한 줌 물 한 줌이라고 안 그러시던가. 이몸도 그 어른을 흙 한 줌, 물 한 줌으로 볼수만 잇섯스면 작히나 조호랴。 마는 그러케 보아지지를 아니 하니 어찌하리。아모리관세음보살님을 불러도, 아모리 그 어른을 닙게보려하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 어른이 아름다워만 보이고 그립기만 하니――꿈에꾸면, 꿈이면 그 어른의 품에 들어서。안 그랫나, 왜? 저, 벌서 삼년도 더 전에 팔월 가위ㅅ날밤에, 그 어른이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이러케 달이 환하게 서창에 빗췻는데, 문을똑똑。누구시요? 내요, 이차돈。이몸은 숨이막힐뜻, 문을 열어。그 어른이 이몸을 이러케 꼭 껴안아。이몸은 정신을 일어, 아아。꿈이면은 지금도。별님아 웃지말어! 그러치 마는 그때와 가튼 이차돈서방님은 다시는, 다시는, 이몸으로는 만날수가 업스니」

이러케 말할 때에 건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룽룽 발ㅅ자욱 소리가 나더니 마는

『달님 일어나겨시오?』

하는것은 버들아기의 소리다。

『예。버들아기。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달님은 옷을 바로잡고 자리와 벼개를 밀어놋코 일어난다。

버들아기도 달님과 별님과가티 검은 머리를 중둥을 자르고 하얀 명주옷을 입엇다。

달님은 버들아기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잠이 업서서 벌서 일어낫거니와 아기는 어찌하야 어느새에?』

하고 버들애기를 자리에 안친다。

『이몸도 잠이 안 들고。』

『참 평양에 겨오신 부모님을 생각하시와。이몸은 이웃에 부모가 겨시건만 뵈옵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부모님이려니와』

하고 버들아기는 별님을 보며

「아, 참 별님은 부모님이 다 안 겨시다고?」

하고 눈을 크게 뜬다

「예。어마님은 아버지손에 돌아가시고。아버님은 자결하시고

하고 별님은 눈을 스르르 감고 한숨을 진다。

「어머님은 아버지 손에?」

하고 버들애기는 놀란다。

「그말 뭇지마오」

하고 달님은 별님의 손을 잡으며,

「이몸의 아버님이 별님의 아버님, 이몸의 어머님이 별님의 어머님。이름도 달님 별님。나기는 비록 신라ㅅ나라와 우메ㅅ나라에 멀리 떨어저낫더라도 살기나 죽기나 한데서 할 별님과 이몸」

하고 별님을 위로한다。

「고마우신 말슴。갑을 길 업는 은혜」

하고 별님은 한번 달님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은혜라면 서로 지는은혜』

하고 달님은 별님의 등을 만지며

『한 자리에 단 한번 마조 안는것도 오백생의 연분이라고。우리 가리 이러케 일생을 함께하는것은 필시 여러 천만생의 연분。버들아기도 일천삼백니 머나먼 나라에 낫건마는 한분을 사모하야 이러케 모이는것도 깁고깁흔 연분。아마도 멀고먼 전생부터 우리 셋은 맺치고 맺친연분。안 그러오, 버들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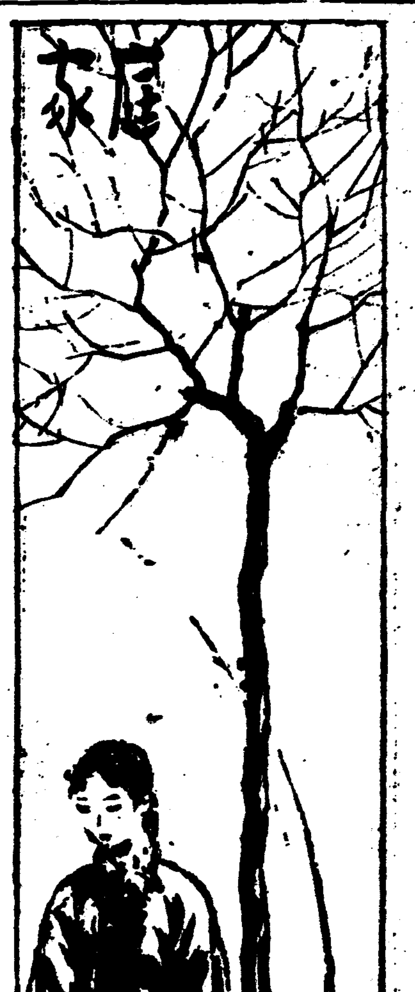
하고 버들아기의 무릅을만지다

『참말 그러하오』

하고 버들아기는 수삽한드시,

『이몸이 이차돈서방님을 뵈옵기는 단 한번。서방님이 이몸의 집에 오섯을때, 이몸의 아비 명으로 인사드린것이 단한번。수삽하야 그 얼굴을 바로 뵈옵지도 못하엿건마는 천번만번이나 뵈온듯한 그 얼굴。한번 뵈온뒤로는 잇치지아니하는 그 얼굴。그리고는 이몸은 일생에 그 어른을 따르리라고굿게 결심하고도 다시는 이속마음도 그 어른께 아뢰어보지못하고 지나기삼년。고구려 땅을은 다 그러치마는 한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아니하는것이 원수랑。이러케 신라까지 따라와서 달님, 별님을 언니가리 친동과가티 모시는것도 참으로 이상한 인연이오』

하고 눈물을 흘린다。



家庭

드러안진부인네 늙지안케하는 체조

"선일이 운동되리라"맙시고 효과가 잇스니 매일해보십시요

젊은신네가 늙지 마자는 것은 아마 녜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커다란 욕심인듯 합니다。그중에서도 사내보담 부인네들에게 더 만흔 욕심일는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삼신산 불로초를 구해 먹을수야 잇습니까? 아니、잇지도 안한 삼신산 불로초를 구하려는것부터 옷으운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대개로 가정부인들은 집안에만 들어 안저 살림에시달리기때문으로 운동이 퍽부족합니다。운동이 부족하니까 늙어진것이 젊어지기는커녕 젊은얼골이삭삭것을거 갑니다。가정부인더러 운동을 하라는것은 무리오나 운동도 운동나름 얼골고와지는 운동이야 엇더습니까? 그래야 고운 얼골을 그나히대로 보존하고 또미운얼골도 고와집니다

첫재 두발을 두어치쯤·반듯이 벌리고 두손을 자연스럽게 늘어드리고 아래턱을 꽉 아래로 숙이고 두어깨를 둘지안한채 첫드리고 가슴을 내미는대신 배는 잡아끌어드립니다。즉이러한 자세가 가장 이상적으로 되게 되자면 귀를과점(起點)으로 해가지고 팔뚝의 한중간을 거치어 발끗까지 수직선(垂直線)이 되어야 합니다。왼몸의힘은 두발의 밧갓편에다가 힘을 모어야 합니다。따데로 모아서는 안됩니다。이러한자세를 해가지고는 인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것입니다。그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용이한것으로서 멧가지의 운동을 소개해드리기로 하겟습니다。

(一) 두발을 한자내지 한자반으로 벌려서 웃몸을 구브리어 가지고 두손을방바닥에 닷도록 합니다。그러케 구브렷다가 폇다가 멧번 되푸리를 합니다

(二) 왼손의손까락을 오른편발끄트로 끌어 가고 또 그다음 왼손을 외편어깨의 뒤로 될수잇는데까지 벗적들며 그와반대로 바른손은 외편발끄로 끌어가고 또그다음 바른손은 오른편 어깨의뒤로 될수잇는데까지 벗듭니다。그러케 이편저편의 손을 올리엇다 나리엇다 멧번이고 되푸리합니다

이운동이 끗나거든 벽아페가서 벽을 두어치 떼노코는 등으로 기대어 섭니다。즉 몬저말한 그자세로서 벽에 기대어 선 모양이 됩니다。그런뒤 배를 힘껏 잡아달리어서 거의 벽에 닷도록 해가지고 심호흡(深呼吸)을 하는동시에 두손으로 좌우편 갈비때를 움키어 가지고 힘껏 벌립니다。심호흡이나 가슴을 벌리는것이나 더좀 강하게 할싸록 좃터만흔 효과를 엇게 됩니다。그여시 그러케 멧번이고 되푸리를 하지 안습니까?몸에 감래될정도라면 좀 만히하기로니 무슨상관이 잇겟습니까? 그러케 날마다 운동을 해갑니다。될수잇다면 아침에일어나서나 저녁에 잘때쯤 하로 두차례식도 조흡니다。그러케 얼마동안 실행해 보십시요。사지가 아조 매끈하니·고르고 혈색도 아조 불그레 하게 조하진답니다。우리가정부인네더러 운동을 하시라고 권고하니까 망칙하니 해괴하니 반대하시겟지만은 얼골이 고와진다는데 망칙이 무엇이고 해괴가 무엇입니까。아모소리 마시고 따님 며느님 다한께 다리시고 이런 운동을 해가도록 하시기 권고합니다。

양의(洋醫)가본 『풍』이란병 (三)

大學病院伊藤內科敎室 朴秉來

그러면 필자가 전문으로하고잇는 내스과방면의 병중에서 엇더한병을 한방의학상으로『풍』이라고하는가를 말삼코저합니다 다면두통(偏頭痛)안면신경마비(顏面神經痲痺)신경염(神經炎)각기(脚氣)등히풍독이라함)늑간신경통(肋間神經痛)기타 일반적으로 신경통 대상포행 진(帶狀匍行疹)혹은 풍(?)요독증(尿毒症)당뇨스병혼수(糖尿病昏睡)뇌척수막염(腦脊髓炎)뇌일혈(腦溢血)뇌빈혈(腦貧血)뇌충혈(腦充血)무도병(舞蹈病)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과 혈압항진증(血壓亢進症)의 부분증세적 수(脊髓)근뇌질병(腦疾病)으로인한 마비증상(痲痺症狀)등 모-든 부분증세를『풍』중으로칭하는 것갓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풍』이 잇슬것이나 일일히들어 말슴하려면 그수가 여간 만치 안할것이고로 약하겟습니다 또는 내스과방면에서『풍』으로 칭하는 그병의 예방법을 서양의학상의 입장으로서 설명한다하면 그역시 면피게로 시일이걸리것이고로 약하고 그중에 대표적이 될『풍』은 무엇일가를 또는 그예방을 현대서양의학상으로 엇지하는가를 말삼코저합니다

그러면 내과방면에서 가장 대표될만한『풍』또는 일반이 어렵게생각하는『풍』이 무엇일까 그것은 뇌출혈(腦出血)또는 뇌출혈코저 생기는 반신불수(半身不隨)일것이니 이것이 대표적『풍』이라고 할수잇스며 일반적으로도 무서운『풍』어려운『풍』으로 생각하는『풍』이며 한의학상으로도 특히 중풍(中風)이라 칭하야 다른『풍』과 특별이 취급을 하고잇습니다

한방의학상으로『중풍』에대하야 네가지로 구별하여 말하엿스니 다음과 갓습니다。

(가) 편고자(偏枯者) 반신불수로되여 한쪽을 쓰지못하고 언어와통증에난이상이업고 지력(智力)에도 이상이업는것

(나) 풍비자(風痱者) 몸에통증은업스나 사지를 수습치못하고 지력도다소간 산란한것

(다) 풍의자(風懿者) 사람을 분간치못하고 혀가구더 말하지못하는것 하며 목이 맥히여신음하는것

(라) 풍비(風痺) 습비(濕痺) 주비(周痺) 근비(筋痺) 맥비(脈痺) 기비(肌痺) 피비(皮痺) 골비(骨痺) 포비(胞痺)등 갖증세가 풍과가튼것

이와가티그증세에따라 구별하야 설명하얏습니다 서양의학상으로도『중풍』을 현대 혈에오는여러가지 마비증상(痲痺症狀)이잇서 한의학상과가티구분할수잇스나 그러나 그증세로 말하면 뇌중추(腦中樞)의결손증상(欠損症狀)입니다 다시말하면 뇌중추신경이상하얏스면 그신경으로써 지배하고잇는 여러가지 부분에 운동、지각(知覺)등의마비를 이르키며 그마비작용이오래계속되면 이차적으로 관절이구더서 점점쇠약하야지게됩니다 또는 출혈한부분의 압박으로일시적마비증세또는 경련등이 오게되는일도 잇습니다 뇌출혈이라도 그출혈의 부분에따라 여러가지병명이 잇스며 그증세도 출혈부위치여하에 의하야 일정치안코 다종 다양입니다 그러나보통으로뇌출혈(腦出血)이라하면 뇌내량(腦內囊)의 출혈을말하게되는것이니 이것은 한방의학상으로『중풍』이라고 칭하며 돌연히 오는 어려운대표적풍입니다

서양의학상으로 뇌출혈을엇지 설명하는가 뇌출혈은 엇지발생하는가를 말삼코저합니다 현설이 잇스니 의두가지대립한 하나는 속일동맥유(粟粒動脈瘤)가 뇌수의적은 동맥에발생되여 그것이 파괴하게되면 뇌출혈이 된다함이요 하나는 뇌수에잇는 소동맥、모세관(毛細管)적은혈관또는 정맥(靜脈)등이 중심이 되여 뇌실질(腦實質) 자신에 적은파궤가생하야 그것이융해하게되면 뇌출혈이된다하는설명이 혈관을중심으로 뇌실질이 파궤 융해되는것은 임파는자가 중독으로 임파는 혈관경련으로 인하야 혈액공급이두절이되면 유산(乳酸)이란것이 발생하여이차적으로 소혈관을 파궤하게되다는견해를 가지고잇습니다

봄 先發隊

남자는 모양을 내면 못쓰는줄 알지만 모양을 내다기보다 남보기에 숭업지안케하는것은 자기의품위를 놉히고 따라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것입니다

×

한풍이 맑고 강풍이 푸르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려서 코끄테 훈향을 느낄때 당신의 몬지안코 텐두리가 오그라진 모자와 구겨진『네크타이』의 감촉이 둔하지 안습니까?

漫話

즘생사람 (二)

成[illegible]

이러케 하지 사흘동안엿습니다 이섬에는 어떠서인가 아지도뭇하게 이상한풍류소리가 들려왓습니다 즘생사람은 이 이상한 풍류소리를붓고 한거름에 놀다란바위꼭대이로 뛰여 올나가서 그때 이즘생사람의 눈에는 처음보는 퍽 이상한것 하나가떠잇습니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힌옷을 단배한척이엿습니다 샛파란갈매를젓에 하얀돗하나가 팔낭거리며 이상한풍류소리를 보내고잇슬때 이를처음보는즘생사람은 한편무서운마음도 떠올랏섯습니다 이럴때 그배속에서는 누가이즘생사람을 보앗는지 그배에서는 별안간 풍류를굿치고 이섬으로 갓가히들어오드니 닷을내리고는 배에탓든 사람들이 전부 나려서 이섬으로올려오고 잇섯습니다

—여러분 이배를아시겟습니까?— 이배는 다른배가아니올시다

지금으로부터 이십년전 이즘생사람이 세상떠엇슬때 즘생사람의집을 습격하야 만흔재화를 빼앗고 온가족들을 참혹하게 죽인 해적단들의 배엿습니다그놈들은 한갈가티 이날도 엇떠한구를 차저서 도마뱀 부자스집을 습격하고 또다른한구를 바라보며 떠나든 길이엿습니다。그리다가 이외로운 섬속에 단지홀로 사러오는 즘생사람을발견한것입니다。

즘생사람은 바위우에 안저서 조금도 움직이지 안코 해적들과 서로 치여다보게 되엿습니다 그때 해적단들은 이즘생사람을 보고는 일제히 우섯습니다 즘생사람역시 해적단을 보고는 새소리를하며 우섯습니다 그럴때 해적단중에서 한사람이 이즘생사람을보고

『네가즘생이냐 사람이냐』 그소리가 자긔듯기에는 너무도 우서워서『삐삐』하고웃기만하엿습니다 해적단들은 서로들귀속을 잡하고 일제히 이즘생사람을 잡으러 드려덤볏습니다 이러하야 즘생사람과 해적단들과는 큰싸홈이 버러젓습니다

서로들 메밀리고 잡아둥굴고한동안 붓삭이가되때 그때 해적단의한사람이 몽동이를드려 이즘생사람에 머리를 따리엿습니다 자연숙에서 아모것도 모르고 자라난 이즘생사람은 붓상하게도 끝동을맛고 혼도가되엿습니다 무지한 해적단놈들은 또다시 굵은밧줄로 꼭꼭묵거서는 그를 배에다 실엇습니다

그때 해적단에다잡은 이묵겨잇는 즘생사람을 한참 바라보드니 부하들을 돌녀노코는 죽여버리라고하엿습니다 그는 다른것이 아니엿습니다 이즘생사람을 면드려는사람은 바로 이해적단의 단장이엿습니다 그가 저즘생사람이 세상떠엇슬때 이가 이섬에다가 죽으라고 내버린것인데그것이 이러케 자라난것을보고는뒤에자긔신변에 피로도심이되여서 그가괴로이지는것이 엿습니다

그래도 부하들은 이를죽이질말고 저서울로다가 돈을밧고 팔려먹자고들하엿습니다 이리하야 또다시망을내고 붓잡하물은 죽이지말자거나하고 말다물을 버리젓슬때 어데서이가 갈매가의때가 한꿈찬울듯이 하아켜날너들드니 그냥 그빨조빨죽한 주둥이로 해적단을 모다 쪼아서 죽이엿습니다

한동안 다시 정신을일흔 즘생사람은 눈을비비고 빼만이려서니 해적단들은 모다 죽어넘어젓는데 그엽해는 또수천동이들이부려저서죽은갈매기떼가 여간 만치 안핫습니다 그때 우연히 고개를들어 하날을 치여다보니 머리우로는 사흘전에 즘생사람이 구원해준 그갈매기 두마리가주둥이가 부러진채 피투성이가되여가지고도 충을 추면서、정신빠진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잇섯습니다。이러하야 즘생사람은 다시금 전과가티 새벗이면 이러나서 햇님에게 절을하고 낫이면 동해우에 떠다니는 고래를 잡어타고 자유스럽게 잘살드랍니다—끗—

『오렌지』녀왕

미국플로리다주『올라!하ー분』이란곳은『오렌지』만히나기로 유명한곳。이곳은해마다 그철이 닥치면『오렌지祭』라는것을 주최하야 모다들 그날을 질겨합니다다사진은이번『오렌지祭』의여흥으로『오렌지女王』을 선출하는데『내가뽑지요』『내가더입부지요』하고 경연을 하는마당입니다 자ー여러분은 어는아가씨를 뽑고십습니까?『다오렌지만못하구!』『그런실례의말은 맙시요』

자녀들 시험치른뒤의 건강회복

영양과휴양을충분히쫄일

상급학교입학시험도 며칠안남엇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르고난아동들의심신은 오래동안 긴장과 흥분으로말미아마 대단히 피로해집니다 그럼으로 시험을치르고나서는곳 새학긔가 도라올동안에 건강을 회복식히지 안어서는 안될것입니다—이점에대해서 몃마디말슴드리지요

◇

먼저 첫재로는 영양의 회복을 도모하야합니다 그것은 수험중에는 심상할수로 잘빠지는 편식(偏食)에 주의하고 야채와、고기등의 계절(季節)에 알마진 것을 섭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더욱 영양이 조치못한 허약아동에는 닭알의 노른자우 빠타 우유 간유(肝油)등을만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와 의론하야정당한 칼슘제(鈣劑)옥도제(沃度劑)의 복용도 필요합니다

×

그리고 뇌(腦)의 피로해복에는 린(燐)과 "레치친"을 섭취할것인대 이것들은 치ー드、청어알 콩우육(牛肉)밀(小麥)등에 만히포함되여 잇습니다 그리고 빈혈에는 경우에따라 철제(鐵劑)를 복용게해야 합니다

×

둘재로는 휴양하는것인대 휴양에는 수면(睡眠)을 충분히하는것이 제일조흡니다 혹 세간에는 시험이 끗낫다 무사히합격되엿다 한턱먹자 놀자 하고극장은 그밧게의 자격적(刺戟的)인 오락에 빠지는일이잇는대 이것들은 절대로 피하도록하며특히 부형되는 보호자의주의하실 일입니다 이것들보다도 바다가에 려행을가거나 정당한 온천으로가서 조용히 휴양하는것이 퍽조흡니다 휴양과아울러 적당한 호외운동(戶外運動)을배일 하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그것으로는 산보 일광욕원족 호외유희(戶外遊戲)등이조코 옷차림도 경쾌하하며 운동후에 땀을닥가야합니다

×

이밧게 오래동안 시험공부로말미아마 눈이 충혈(充血)되여 결막염 도라홈가튼것에걸녀 고생하는일도 죵종잇사오니 일차의사와 의론하야 미리치료를해두는것이 조흡니다 이우에 주의할것은 새학긔초에 짝 직혀주서야 할일이며 노는시간에 혼자외로히잇지말고 여럿이 가티운동하도록 하야주십시요 그러나 심장이약한 아동은 과격한운동은 피하고 검도나 유도도 안하는것이 조흡니다

光線(광선)과 衣服色(옷빗길)

이런 관게를잘아러야 옷호사도 생색이난다

광선(光線)과 옷빗(衣服色)의관계—이것은 어렵고도 자미잇는 문제입니다 큰상점이나 백화점의 휘황한전등불미테 그럴듯이보이든 옷감이 집에도라와 햇빗아래에서 보면 색이달려저보이는수가만습니다

◇

엇재서 달라볼일까 이점을 여러분은 생각해보실필요가 잇슬것입니다

◇

광선과 옷빗의관계를 생각한다면 가튼햇빗아래에서도 아츰과 오후가 다를것은 물론이며 여기에따라 옷빗갈에 미치는영양도달라질터이므로 그미묘한관계를 잘연구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 날이청명할때와 날이흐릴때 또는 비올때、눈올때가 다다를것이고 불맛치라고하드래도 등잔불 촛불전등불빗이 다다를것이며 가튼전등이라 할지라도 보통 우리네방의전등과 극장백화점전등불빗이 또다를것인즉여기에따라 거기에미치는 영향으로인해서 자연색채적효과도 달러질것입니다

◇

그럼으로 광선과의복의 빗갈과의 문제는시간과 장소가달려지는데따라 세밀하게 생각해볼수잇슬것입니다 여기에 몃가지 쉬운예를드러말슴한다면— 먼저 붉은기운이잇스면서 푸르빗이 만히나는자주색(紫朱色)은 햇볏에내어노코볼때는 빗이 날는듯하면 고약해보이나 밝은 전등불미테서는 퍽곱게 빗나보입니다。또 검은빗과 하얀빗도 햇볏과불빗미테서 볼때 다소다르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보아서는 별차이가업습니다 그와반대로 다갈색(茶褐色)계통의 히빗은 전등불미테서 볼때치치하고 더러워 보이나 햇빗에 나서면 뚜렷이 고혼빛이 납니다 단지 순전한농황빗일때는전등불에도팬찬습니다 또붉은팟빗(小豆色)은 전등불에 매우 꿉습니다다만 모란빗(牡丹色)은 꿉습니다。그리고 진당홍이라함까 새빨간빗은 햇볏에나 전등불에 나할것업시 꼽게불타오르는듯이빗납니다。

◇

여지것말한것을 다시한번 종드러 말슴한다면— 전등불을 미테서는 나이(年齡)에 맛지안는 화한빗갈이효과적인때가만습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광선아래에서는 그고혼빗이 도리혀 최최하고 천해보이는편이만습니다。그럼으로 대체로이것을 생각할때 화한빗갈은밤에나 비교적 어둠침침한 실내에서 빗나고 그와반대로 침착하고 별립업시보이는 빗갈은 밝은데서 도리어 효과적으로빗납니다 이점을 미루어생각해서 나드리갈때는 침착한 점잔은빗갈을택하고 집안에서는 그밧대로 화한빗갈을택하는편이 또 낡은날과 흐린날도 역시 이점을 참작해서 흐린날에 도리혀 화한빗을 취하는것이조켓습니다

◇

봄으로부터 초여름까지에 맑고진한 노랑빗치조코 눈이와서 하야케싸인날은 진한빨갱이가꼽게보입니다 그러나 푸른빗계통(靑色)이나『아이리쉬·그리인』이나고하는 연두빗은 얼골이희고 또 드러가고 나온데가 확실한 말하자면 조각적인얼골에 어울릴뿐입니다 그리고 푸른빗계통에도 아주진한 비단종은 찬란한등불미테서는 효과적이못됩니다

◇

이러한식으로 말해간다면 한이업는데 이것도 어떤빗갈의옷을 입는 그분의몸맵시와 성격에따라 일괄적으로 말할수업습니다 그러나 광선과빗갈이 엄마나 미묘한 마술적역할을하는가를 충분히 생각해서 빗갈을 택하는것이 모양내는 분에게는 대단히 필요할줄압니다

학의정가

술관절강직

問 삼십이세남자이온데 삼십세되는봄에 다리를 각각히 알키시작하야 비장근부근에 농이들엇다가 업서진후 술관절이(ㄱ)자로 고정되여서 늘근심이오니 전과갓치 굴신하야 도보를하게되지못할가요 발목과 넙적다리는 아모이상이 업습니다 다리를 펴게만되여도 조흘것갓습니다。치료방법을 하교하야주십시오 (白馬 一讀者)

答 화농성슬관절염(化膿性膝關節炎)의 결과로생긴 (슬관절강직(膝關節强直)인듯합니다。면밀한주의와 감시로 철저한 치료를하지아니하면은 병신이 되기쉬울습니다。될수잇스면은 전문의원에 입원하야 마취를하야괴게적으로 굴신도하고 열긔치료(熱氣治療)와 맛사ー지(摩擦)도하여야 할것입니다。

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다친다리가 가려워

問 모중학교 재학중이온대 십여일전에 체조시간에 작난치다가 발목우종갱이를 채이어서당시에는 압파도 체조는하고케ー 몸을 풀고본즉 멍이조금 든듯하고 게속하야 압하서 잇는날 옥도정긔를 발넛습니다。그랫드니 압픈것은 덜하나 부긔가잇고 가려우며 무어이나기도하고 당처는 살벗도 조금붉은듯하고 다르할갓습니다。엇더케하면 나흘지 가르켜주십시오 (市內 一讀者)

答 닷친까닭이 아니라、옥도정긔를발른뒤에 생긴 피부염(皮膚炎)인듯합니다。옥도에 과민한사람이 옥도정긔를쓰면 말슴과가티 부긔가나고 발진이되며 가려워지는것입니다。이회답이지상에 발표될때쯤은 다나섯스리라고 밋습니다다만은 만약에 아직도 낫지아니하얏거든 아여화 오레ー부유를 밥으십시오 (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가삼이압흠니다

問 약사개월전부터 운동을과하게하거나 바람을쏘이면 가삼이무쯤하고 속에서 벌네가옴나오는것가티 소리가나며 이소리가 도라다닐때면 가삼이맛첩니다 이때에드림을하면 낫습니다 한방의에게 진찰한측 심장열병이라하야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한제를 복용하엿스나 낫지안습니다 선생님의판단으로 치료코저합니다 (定平 一生)

答 당신이 말삼한가삼이라함은 맹치밋을 말삼하는것갓습니다 아마도 위무력증(胃無力症)인것갓흐니 좌과처방을 두달동안연복하시고 적당한운동을 하시며 자극성이 심한음식 또는술담배등을금하여 조심하야 보십시요 그러면 속히나흘것입니다

一、重曹 一、五
빠로타미라제 一、〇
호미카越幾斯 〇、六
煆製마크네시아 〇、五
右一日量分三食前後服用 粟一個月連用

(大學病院 伊藤內科 朴秉來)

기생충구제

問 저는 금년이십세인대 기생충이 잇는것갓습니다 여러가지치료를 하엿스나 효과가업습니다 치료법과 조흔약을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독자)

答 기생충에 여러종류가잇삽고 치료도 다각각다르오니 대답하야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에가시여 대변검사를 하시고 그생충의 종류를 진찰하는것이 제일선책일거십니다 (大學病院 伊藤內科 朴秉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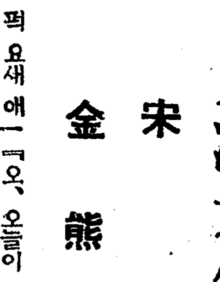
우리차지

아침에 이러나서
제손으로 이불을 착착
개어 장우에 언고、방을
맑아케 비질하고 걸레
질한다음、움물가에 나
가 세수를 하란말야。
반드시 니를 닥거야지。
그리고 손톱의때도 빼
고ー。이런뒤에 아침밥
을 먹거든。

(글쓴사람 정인영)

月波先生 【七】

宋影 作 金熊超 畫



『천만에요。선생도 퍽 요새 애를 쓰시는구료』

『황송스럽습니다—그런데 참 선생님 일간 청첩도 보내드리겟습니다마는 오는 저의 학예회스날에는 꼭 참례를 하여주십쇼』

『예、그러리다』

월파선생의 목소리는 몹시떨니엿다

박선생의일행은 인사들을하고 돌처서서 다시 다른동리로 향해서간다

회회나무숫가지에는 붉고 검은 글씨를 석거서 쓴 국문의 포스터ー가 빨듯이 부터잇섯다

七

『오、오늘이 보름날이로구나』

월파선생은 건는편 학교마당을 뚜려질듯이 바라다보면서 중얼거렷다

학예회준비하느라고 와글와글 하는놈들、잘보히지는 아니하나『농민강좌』의 젊은패들은 불빌 틀또 다 제처노코 돌에다『비게』(鬚齋代用)를 매고 만국긔를달고 천막을치고 멍석을피고 외통 야단들이나서 분주히 돌아다닐것이다

박선생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안에서 연극과 노래의 연습을 식히고잇슬것이다

『배호지안으면 눈뜬장님이다』라는 따위의 포스터ー도 잇는 모양으로도 잔뜩써서 부쳣슬것이다

『지글방의아이들은 부러워하는과생을 떠우고서 학교아이들의 참가하는것을 입을 버리고서서 구경들을하고잇슬것이다

『엥히 망할 고연녀석들』

월파선생은 맨나종의 한숨마을더ー한번 생각하고서 아모도들을수잇슬만치 큰목소리로 악을썻다

—입을 버리고서서 구경하는자긔글방학도의 환상을 거리고서

『온나 돌아가기만해봐라』

잔뜩빼르면서 선생은 집으로내려왓다

『아버지 정신차리시죠』

매우 거세인목소리로 다정스런 숙희의목소리를 짓눌러버리엇다

숙희는 그래도 생긋이웃으면서

『아이들이 저건너학교로 구경을간모양이죠』

『아마그런모양인가보다、엥히、망할자식들가트니』

『아버지 왜 그러케 역정만내십니까』

『아니다』

월파선생은 화가 덜컥나서 답배한대를피여물엇다 숙희는 아버지의마음을 알어보고 매우민망스러히알엇으나 그러나 아모런 사색도내지는안엇다

점더ー다정한목소리로

『아버지 되여가는대로 하시지 그러케 걱정만하시면 되십니가』

『누가 걱정하니 엥히』

『하……아버지 안심입명(安心立命)을하라고 저에게 노ー밀너주셋조』

이소리에 월파선생의 화는 풀니엿다

그리고 달겨들어서 끼여안고까지십게되엿다

『허…… 누가 화를 내는줄을아니 허…… 인제는 시대가 몹시번햇구나』

아버지의 웃든 소리를 듯자 숙희의웃음은사려젓다

억제로 웃는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한 숙희의어린가슴은 미여질뜻이나 우울하여젓다

×

한식경이 칙신지나서 아이들은 허번덕거리고 다름박질뛰여와다

선생은 말한마듸업시 마루끗에가 도사리고안저잇섯다

아이들은 얼골들이 샛빨앗케 상긔들이 되여가지고 쌔근쌔근거린다

겁이잔뜩어린 깜안눈동자로서로처다보면서 아모소리들도 아니햇다

그중의 제일큰 길동이만은 무어라고 말대답할가하고 밀이부터 입술을 쫑긋쫑긋하고섯다

『너이들 어듸가서다왓니』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인자하엿다

벼락이 떠러질줄알고잇든 아이들의마음은 오분이나 가라안젓다

길동이도 빙긋웃으면서

『저ー건너 학교에요』

『응 저긔 오늘 학예회스날이지……요담부터는 점심시간에는 넘우 먼ー대로는가서 놀지말아』

『네』

아이들은 펄뜻이 깃버햇다

『자 조금숨들쉬고 뒤에 낫 글을시작해라』

『네』

아이들은 우당퉁당 마루로뛰여올나서 펄펄뛰면서 거는방으로들어갓다

벌서 글읽는소리가 시작되엿다

8

선생은 담배를 또 한대 피여물엇다

그리고 엇더케하여야 박선생보다도 나은일을해볼가하는생각을하엿다

비란을 하고 회방을놀고하든 재래의소극적태도에 한층 뛰여나아가서 점더 조은 적극적대항책이업슬가?

여러가지로 생각을해보앗스나 별답은 묘책은 아니나왓다

아우에게

愼弦重

얼마전에 내 故鄕엘 갓다왓다 바다속에서 해와 달이 떠올은는 내 그전에 살던 자그마한 그港口다 암! 故鄕 그祠堂도 차저보앗다 祠堂뒤에는 큰대밧이 그前그대로·푸르러잇고 門압에 늘어서잇는 아람드리 나무를 맛해서 소사오른

冬栢 은는 그생활이 그대로 맑다。바닷가에 개벌을 하고잇는 처녀들도 먼눈에 보기조치만 이 생활을 옥통이에다 길어가는 새각시들의 가까운 表情가 더 눈에 든다 望지이를 따라 本堂으로 들어가서 冥將前의 位牌아래 衷心껏 절하고 나온 나의 胸中을 잘 알니라

불어오는 바람질도 따스하고 어디선지 배여오는 흙냄새도 훈훈하다。그러다 여기가 왼남쪽끗치지라 벌서 봄은 完然히 봄이로구나 더구나 내몸과 마음도 봄이어든 내쉬는 숨과 내몸에 흐르는 피가 모다 봄이엇다。

그러나 문득 내가 이故鄕땅을 간당 八年만에 왓다는

생각 을 하니 그 八年이 한숨에 덤퍽 뛰여갓다는 크나큰 空虛에 부닥친다 또 하나。

어제아츰 뜻밧게 江南에서 봄消息이 왓다。洛東江邊 어느조고마한 村에서 病들어서 시들어가는 내 어린날 동무이던 한젊은 女人에게서다。그곳은 벌서 퍽이나 따산모양이다 지나간어린적 고흔몸을 머리에 허되이 그리고마하는 病든그女子로 組前히 차자온 이봄 노곤한 空氣를 한껏 겨워하는 그모양이 아런아럿 보힌다 어린그때 어나 年頃을 한꺼求策다니던 이야기 昌慶苑 벗꼿이야기며 마주作亂치던 이야기들 모다 조흔 追憶이다 산다는것과 죽는다는 것에 對한

深奧 한생각도 조흔香氣를 품고 잇는듯하다 그러나 그女子를 맛난지가 어느듯 十年이되엿다는 生覺을하니 아차차 내가 今年에 스물일곱、벌서 三十이로구나! 그녀자와는 달려서 나는 그대로 情熱과體康과 靑年다운 野心을가지고잇다고 밋고는잇지만 果然 내스스로에게나 우선 부끄럽지안흘 自信잇는 것들인가를 疑心치안흘수업다 시방 나는 고요한 아닌밤중에 홀로 端正히 이러안저 묵어운나의 默想에 잠긴 虛空에 떠지곤다 엇서리 갈피를 잡지못하겟다 그대로 無限한 깁피로 떠러저들어가서 꼿나는곳이업는것갓다 자구만 들고도 돌기만하는것갓다 닷든곳이업다 도라울바이업다 내故鄕은 그때그대로인데 벌서 그때와 시방사이에는

八年 이 가로놓어잇고내아는 그女子는 아직도 그려한녀자러니하고잇는데 어느 틈에 十年이라는時間이 그녀자와나의우에로 줄다름처갓다 아직도그저 漠然하거나마 장차 보람잇는짓을 해보겟다고는하고잇지만 十年前에도 亦是 그려햇거던 如前히 그때와가튼漠然한 境地를 버서나지 못한것가트니 지나간 그동안의 十年이 무엇을 意味할것인고?

했다는 일이 업고、배웟다는 工夫가 업고、닥것다는 才能이 업고、세웟다는 品格이 업스니 아무사 내 벌서 설혼이 가깝도록 果然 무엇을 햇다는냐? 내 머리가 텅비여잇고 내피가 공중뛰고 잇섯다는것을 이제야 정작 알겟구나 나의

意志 가 弱해저잇고 나의 을 아니 모든點이 낫븐 缺點에 떠러저잇는것을 깨닷겟다。방가는것가갓다 내아직도 成熟한 生命의 실머리는 떠옥둥크러저은 점점 더긴허만든려가고 나의 길이창창한 靑年이라고도 하는데 이처럼 보잘것업고 하잘것업는내가 그누구를 본바더 나를 살려갈수잇슬가 容易하기짝이업다 이러케 그대로 生覺에려나 내가 못낫다는 한 생각에서生覺을 낫코파들어마간다 그 事實마은 또렷이 나타나지안햇느나 올치 어떠케 실머리가 잡힐것가다 그러나 내가 좋비어잇다 無限한空虛를 늣긴다는事實 그것이다 옳타 오라 여태 것내가 가지고온다고잇던 그原則에 對한 深度의問題이다 그漠然性이다

漠然 이다 그러타또 업세한 그『뜻』이 엿기때문워야되다 漠然한『뜻』이아니라眼死的『뜻』이어야만된다 멀리떠러저잇는사랑하는 나의아우야! 나와함끠 이立志의 過程을밟아야만될 나의아우야! 무엇보다도 이『뜻』이問題다 더구나立志의 眼先이 焦點이다 네가 가지고잇다고하면 그天才를發揮할어라도 네가려여저잇다고하면 그德性을 活用할어라도이眼先的『뜻』의 認識을 完全히 通過함이 不可缺의 要因이며그礎石이다 아우야 지금 이때에 네아는中에서 몇몇사람이나 그『뜻』에 完全히 목숨을걸고가는그런사람이잇더냐? 한사람 이라도 그런사람이 잇다면 그것이 곳 네가

偉業 해야될 人物이다『뜻』이 이서면서 지금이때에 서 꼭 한사람 우리러본바를人物이 머리속에 떠오르면는 아우야 네至주에 나서 네精神이 네環境을 울어뜻고나가갓이다 그한사람밧게는 잇슬수업다 두사람째는 곳 自身이어야될것이다 이러하야 그우혜 또한 獨創的인 길을 둘버야만하겟다 벌서닭이울고 東이 트기시작한다 내 그한사람도 떠오르기시작한다 (끗)

學藝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 批判 (二)

洪起文

朝鮮史上 一千年來第一大事件이라는 題目아래 丹齋는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民族의盛衰는 매양 그思想의趨向如何에 달린것이며 思想趨向의 或左或右는 매양 某種事件의 影響을 입는것이다 그러면 朝鮮近世의宗敎나 學術이나

◇…政治나 風俗이 事大主義의奴隸가 됨이 무슨事件에原因함인가? 어찌하야 孝하며 어찌하야 忠하라하는가? 어찌하야 孔子를 놉히며 어찌하야 異端을 排斥하라하는가? 어찌하야 太極이 兩儀를 나코 兩儀가 八卦를 낫는다고 하는가? 어찌하야身修然後에家齊요 家齊然後에國治인가? 어찌하야 비록 頭痛이 날지라도 冠網을 끄르지 안하며 틔눈이 잇슬찌라라 버선을 신는것이 禮이엇든가? 先輩의말이면 그대로좃고 先代의일이면 그대로行하야 一世를 몰아 殘溺、衰退、不自由의 길로 들어감이무엇에 原因함인가? 威化島의回軍인가? 壬辰의亂인가? 丙子의胡亂인가? 四色의 黨派인가? 班常의階級인가? 程朱學說의 弊인가? 文貴武賤의 遺習인가? 무슨事件이 前述한 宗敎、學術、政治、風俗各方面에 奴隸性을 産出하얏는가? 나는 一言으로 回答하야 가로되 高麗仁宗十三年西京戰役—卽妙淸이 金富軾에게 敗함이 그原因이라한다』(朝鮮史研究草第五六頁)

아니 그보담도 史의定義와朝鮮史의 範圍라는題目아래 丹齋는 또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歷史란 무엇이뇨? 人類社會의 我와非我의鬪爭이 時間부터 發展하며 空間부터 擴大하는 心的狀態의 記錄이니

◇…世界 史라하면 世界人類의 그리되어온 記錄이며 朝鮮史라면 朝鮮民族이 그리되여온 記錄이니라。무엇을 我라하며 무엇을 非我라하느뇨? 깁히 팔것업시 얏치말하면 무릇主觀的으로 선者를 我라하고 그 外에는 外我라하느니 이를테면 朝鮮人은 朝鮮을 我라하고 英露法美…等을 外我라하지만 英露法美…等은 다각긔 제나라를 我라하고 朝鮮을外我라하며 無産階級은 無産階級을 我라하고 地主나 資本家…等을 外我라하지만 地主나資本家…等은 다각긔 제부치를 我라하고 無産階級을外我라하며 이뿐아니라 學問에나 技術에나 職業에나 意見에나 밧드시 本位인 我가잇스면 딸아서 我와對立된 非我가잇고 我의中에 我와非我가 잇스면 外我의中에도 我와非我가잇서 그리하야 我에對한 非我의接觸이 煩劇할사록 非我에對한 我의奮鬪가 더욱猛烈하야 人類社會의活動이 休息될사이가 업스며 歷史의前途가 完結될날이 업나니 그럼으로 歷史는 我와非我의鬪爭의 記錄이니라』(朝鮮史第一編第一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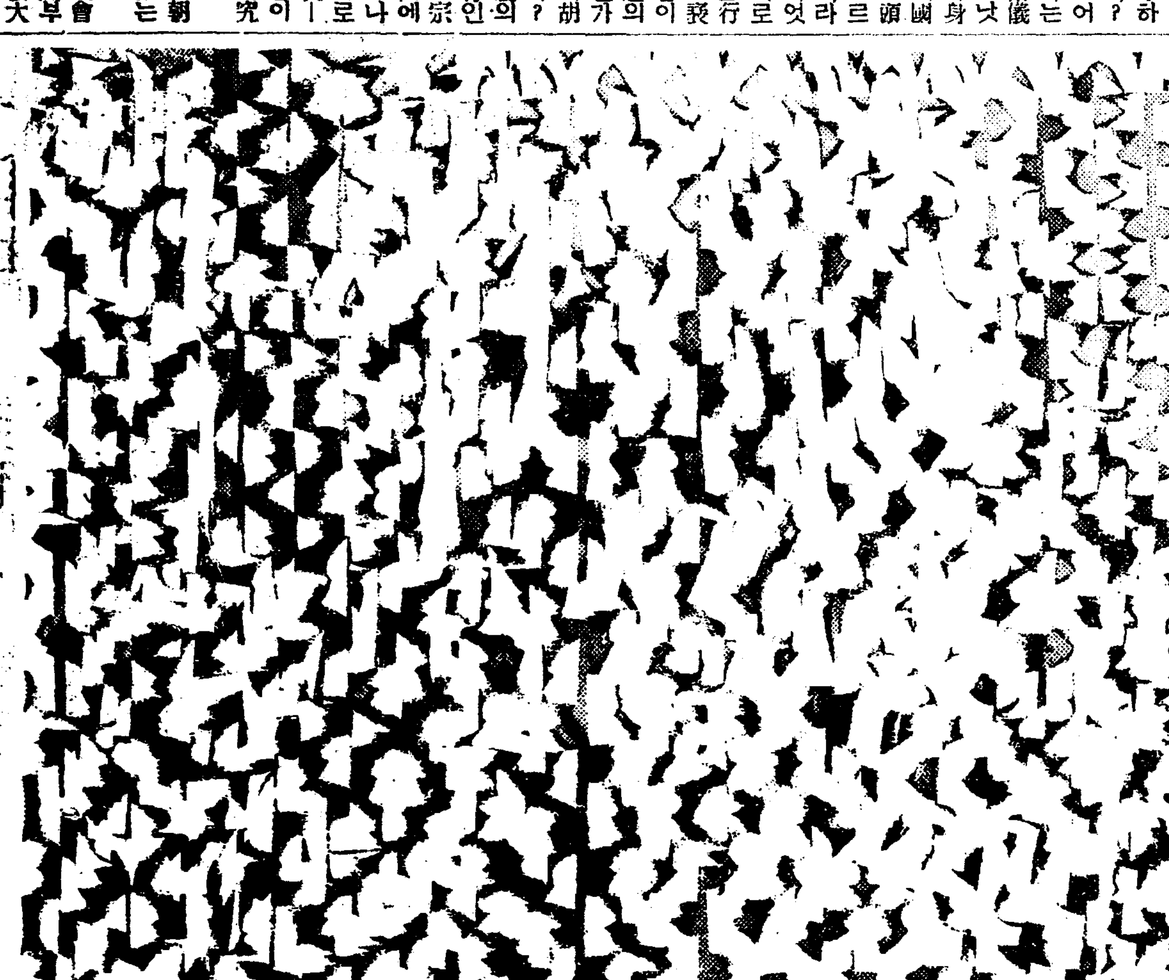
장황함을 무릅스고 긴句節을 그대로 引用한것은 그의 歷史觀을 그自身으로하야금 스스로 論述케 하고자 함이다 그의著作이 널리 읽히어 지지 못한오늘날 그러케 하는것이 좀더 愼重치 안할까 생각한다。

그런데 前記 引用句로서도 大略 斟酌할바와가티 丹齋는 瀟洒健快한 同時多分感性에 달리는

◇…文章의 所有者로서自己의 見解를 簡明 直截하게 表示해주기에는 그文章이 도리어 多少의 障碍를 이루는 點도업지 안타。그럼으로 그의 著作으로부터 字字句句를 흘터 가지고 先은 이런데 後은 엇재 이러나는式으로 따지어서는 吹毛覓疵에 지내지 안는다。그러나 何如튼 丹齋는 思想趨向의 如何가 民族盛衰를 決定한다고 하고 某種事件이 다시 그思想趨向을 決定한다고 하지 안 햇는가?그 某種事件의 한 例로는 妙淸叛亂 丹齋의 說明에 依하야 儒敎思想에對한 花郞思想의 爭鬪—그것의 失敗를들지안햇는가?또 丹齋는 歷史를 我와 非我에對한 鬪爭에 依한 心的狀態의 記錄이라고 하지 안 햇는가? 심지어 有史後歷史의 重要한 根幹을 이루는 階級對立까지도 我와 非我의鬪爭이라는 漠然한 槪念아래 尋常하게 包攝시키지 안햇는가? 아모리 好意로 보더라도 그가 歷史의 原動力을 精神에서 차즈려고 햇다는것만은 否認치 못 한다。그點에 잇서 그는 從來의 觀念論的歷史家로부터 一步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잇다。다시 말하야 그는 歷史의 原動力이 物質的生産力에 노히어 잇다는것도 理解치 못 하얏고 또 有史後의歷史가 階級對立의歷史라는것도 理解치 못 하얏다。그래서 그의 歷史學은 恒常 그當時 그社會의 가장

◇…重要한 生産關係에 對하야 全然 關心도 가지지 안코 오족 國家의分合이라든지 國威의消長이라든지 宗敎思想의 變易이라든지 名將의 戰功이라든지 乃至 英主의 偉蹟이라든지 等等 皮相的 現象을 어루더듣기에 終始하얏다。朝鮮史研究艸를 한번 보라。萬一 그것은 各部門 斷片斷片의 研究論文을 모은것으로 도좋 다르다고 할진댄 다시 朝鮮史를 보라 正統의 來歷 朝鮮의 政體를 말하기에 幾分說明 三國時代의 經濟生活 乃至 階級關係가든데로는 눈을 돌리지 안햇다。차라리 新羅文獻人의 人物評을 論評키 爲하야는 幾百言을 허비하엿다 그런데는 一言도 비치지 안햇것이다。

丹齋와가튼 歷史學에게서는 眞正한 歷史가 차저질리 決코 업는 일이다。이것은 그를 爲하야 거의 根本的 不幸을 意味한다。



漢詩

槿崗考選

春雪—押風　選外佳作三之二

大邱府 孝山 許善

寒°峭°江°城°帶°晩°風°
豆°稭°灰°落°滿°虛°空°
千°峀°凝°如°雲°漠°漠°
四°簷°鳴°似°雨°濛°濛°
水°面°融°消°添°舊°綠°
花°根°黏°着°釀°新°紅°
莫°言°過°臘°非°時°降°
總°是°東°君°造°化°功°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朝鮮文壇의 現代的諸相

—藝術的認識의特殊性—

❶ 韓曉

『眞理는 單純을要求하고 虛僞는複雜을 要求한다』(꼬르키ー)

그럼으로 虛僞의歷史的 規定性을 抹殺하는 文化政策의 複雜化된 表現以外의 아모ー것도아닌것이다 그들은 生活現象에對한一切의 諸現象은 虛僞의粉裝한 科學的研究를 普通하야 客觀的眞理를 探求하는것이아니라、그眞理의客觀性을 無視하고 그들의 致富를爲한 그들의安全의持續을爲한 한개의手段으로서 眞理를 製造하는것이다 이러한眞理의『手工業的生産』은 必然的으로그들의 複雜한諸事業과 結托되여 自己防衛의唯一한 手段으로서

政 治的大儒主義를 前面에 내세우고 맛시중을 自己救濟의 唯一한武器로서 保守하고잇는것이다

그리하야 그들이飼養하는 一切의詐欺師와히스테리ー患者와狂信者等을 總動員시켜서、社會的인 歷史的創造能力을가진 健康한 新興勢力에對抗시키려는 至愧히 複雜한事業을 不斷히 繼續하고잇는것이다

더욱히 藝術의領域에잇서서의 그들의一切의 智的에 네루기ー의數學的成長은 오직『眞理製造의 거룩한 狂舞에 消費되고마는것이다

그들의藝術은 歪曲된 그들의 眞理를謳歌할假裝된 그들의虛僞를正常化하는 藝術以外의 아무

여기서나는 가장表面化된 그들의特徵的인 몃개의魔術을 指摘하야 우리들의 嚴正한 論理를가지고 그들의 假面을 冷情히剝奪하려고한다

×

一切의藝術理論은 現實에對한 藝術的認識의 具體的表現이다 그리하야그것은 우리들의 一切의 社會的實踐을 通한

相 互의因果關係에 依하야 不斷히 發展되고充實하여지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認識의過程에 잇서서의 實踐과 理論과의 相互關聯關係를 正當히 理解할수 잇는것은 오직 唯物 辯證法的 見解뿐으로서 그外의 모든觀念論者及 機械的唯物論者는 도리어 理論과 實踐과의 分離의危險性을 揚棄하지못할뿐니라 認識에對하야 實踐이 가지고잇는바 役割을또한 正當히認定하지 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辯證法的唯物論은 藝術의 領域에잇어서의 藝術家의 社會的實踐에依하야 發展되는 藝術的認識의正確한 究明만이 그의 客觀的表象인 藝術理論의 正當性與否를 規定하는 唯一의 手段인것을立證하는바이다 (勿論이境遇에 잇서서 唯物辯證法 그自身이 또한 認識論인것을 否認하야서는 아니된다 여기에對하야서는 文學上의規定性과 非規定에關한細論한 解明이잇서야되겟스나 그것은 日前東亞日報에發表된『文學의非規定性의 問題』에對한林和氏의 論文을 參酌하여주기를바란다)

우리가 現實의 過程에잇서서 提議하고잇는바 一切의 藝術理論—더욱히

創 作方法으로서의 社會主義的리알리즘의 問題에 關한 眞正한 檢討는 그것의 觀念的 抽象化及生活環境의 差異를 絶對命題로 하는 機械的偏見으로서 施行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우리들의 現實的實踐過程에對한 客觀的認識과 그의歷史的規程性의 辯證法的解明에 잇서서만可能한것이다。

레—ㅁ은 다음과가티말하얏다『認識論에잇서서는 科學의 다른모든領域에잇서서와가티 辯證法으로 考察하지안으면 안이된다 卽우리들의[illegible] 미凝固된不變的인것으로 想定하지말고 如何히하야 無知에서 知識이生하며 如何히하야 不安全하고不精密한知識이 完全하고 또한보다精密한것이되는것인가함을 檢討하지안으면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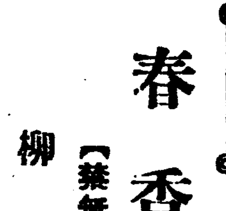
그럼으로 認識은 客觀的現實의 不斷한發展過程과함께 그自身不斷히發展하며 그리하야 그發展의過程과 人間의社會的實踐의過程과의

辯 證法的統一에依하야 다完全한 보다精密한知[illegible] 人間의意識에서獨立하야 存在하며 人間의認識은 그客觀的現實의反映이라는것 그리고그認識은對象과의統一미레서 長久한 歷史的過程을 經過하야 漸次로 豐富한 智識을 獲得할수잇다는것 이러한 客觀과主觀、對象과認識의 辯證法的統一에잇서서만 우리는 社會主義리알리즘을 包含한 一切의藝術理論을 正當히理解할수가잇는것이다

戲曲 春香傳 (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香丹 (房門을열고) 아씨 미음이라도 좀잡수서야지오 아츰도 좋아잡수시고 어쩌려고속만 태우십니까?

春香 향단아 인제나는 목재비라도하여서 죽어야 하겟다。오늘이나 내일이나하고 서울서 편지오기만 기다리고 살엇는데 기다리는 편지는 오지아니하고 해괴한 소문만들리니 내가살어 무엇하리。차라리 자결이나하야 귀도람이녀시되어—

香丹 아씨 걱정마옵 도령님장가 드섯다는 소문은 헛소문일꺼요 도령님이 그러케 의리업는 양반은 아닐것입니다

春香 방자놈도 무정하지。서울까지 갓김에 어떠케 하여서라도 도령님을 뵈옵고 오지 안코—

香丹 그놈이 떠버리기나 하지 마음이 어디 착실 하여야지오。에그 한양이 지척이면 저라도 가오련만……

春香 (房子에게 부처던 편지를 내어) 이편지 한장 헐랑으로 일편 이래 베루엇든데—(편지를 오리가리 찟는다) 향단아 요줌은 마님까지 웨 그러시냐? 내손은 물리주고 그저 도만보고 개가만하라니 더구나 나는 못살겟다。

香丹 그래도 아씨를 그중 생각는이는 마님입니다。저것보세요。마님은 아씨를위하여서 저러케 정성을 드리고 잇지 안소

春香 나를위하여서 드리는 정성인지 돈을위해서 드리는정성인지 누가알일이냐?

(行首妓生이때登場)

行首妓生 (사립문에 들어오다가 손비비는 月梅를보고) 아이구 아즈머니 무슨 정성을 이러케드립니까?

月梅 너 오래간 만이로구나。

行首妓生 아즈머니 이애 춘향이는 어데갓소?

月梅 가긴 어델가? 저기잇지 (마루로 案內한다)

春香 언니 어서 오옹。

行首妓生 춘향아 요즘은 병이 어떠니?

月梅 그래 오늘 어찌왓노 동헌에서는 한참발들러인데—

行首妓生 아즈머니 다른것이아니라 오늘기생점고를 하는데요—

月梅 아니 기생 점고부터 먼저한단말이냐?참우수운일도잇다。

行首妓生 그래서 삼문안에서는 하인놈들까지 쑤군거리고 야단이랍니다。사스도께서 차담상을 잡수시고 나더니 대뜸 이러케 분부하시겟지오。『각방관속들이 나를 지영하느라고 모도 갓불모냥이니 다른일은 제폐하고、너머 아모것도 아니하는것도 무미하니 기생점고나 하게하여라』

月梅 호호호……남원고을 기생만흔줄알고 이사스도가 잔뜩 마음이달뜬거로구나。

行首妓生 그래 춘향이까지 현신하래요。

春香 언니 내가 기생이오?

行首妓生 기생위명한것은 원기대비 수비 정속비 할것업시 하나스도 유루말고 쪽쪽 헐어서 점고에 현신하랍시는테 어쩌니?

春香 그래도 나는 벌서 임자잇는 몸이아니오?

行首妓生 호호호……너도어리석다。한번올라간뒤로 여태 차자보지도안는 그아이놈을 그래서방이라고 밋고 잇니?에그 어듸 그리가놈마못한 사내가 업겟니!

月梅 애야오라니 한번 가보렴은

春香 실혀요。가기만하면 닷자곳자로 수청드리랄것 아니오 이번 신관사스도께서 호색남아라니 뻔한일이지。

行首妓生 수청드리라거든 수청드리려무나。무슨 걱정이냐? 그러치안송 아즈머니 아즈머니도 사스도사위보고 좃켓소?

春香 (斷然히)언니 재발 나를 괴럽게 굴지마오。나는 죽어도 못가겟소

行首妓生 (단섭이 죽을厭해지면) 관장은 위민지부모라니 그래 사스도의 령을 거역할테냐?

月梅 (春香의 態度를 보더니하는수업시 行首妓生을 닭낸다) 악아 그만 들어가거랑。전라 감사라도 제 실타면 못하는것아니냐? 이번은 그저 제서방만알지 다른것은 도모지 모르는변이다。그리고 저 고라구니 보아라。저러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어듸를 나가겟니。그러니까 너 가서 사스도께 이러케 아뢰어라。춘향이는 상사병으로 두문불출하고 거이 죽게되엿습니다고。

行首妓生 안간다는것을 소라고 코뀌어 가지는 못하겟다。그러치마는 그러다가 패니 큰코다칠라。그사스도의 성미는 여간 무섭고 엄하지안타。

月梅 에그、이일을 어쩌나?

行首妓生 갑니다 아즈머니 정신 차립시오。

(行首妓生 쌀쌀하게退場)

月梅 이년아 어쩌려고 이러느냐? 관장이 부르시는데 안간다는 소리가 무어냐? 그분이 원험을 한번 품은 날은 그저 우리는 죽는 날이다。이전가트면 모르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어듸 등을 대일테나 잇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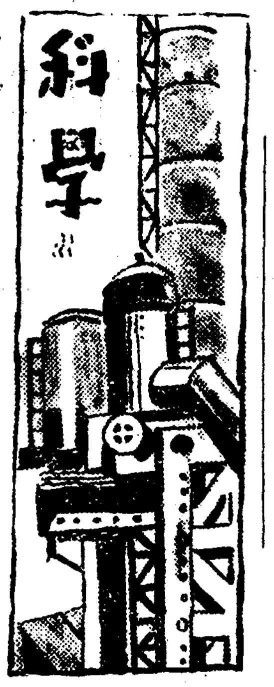
絢爛·豪華의極致인『사르쓰부르그』의藝術祭

【伯林同盟郵信】今夏七月廿五日부터 八月卅一日까지 月餘에亘하야 『오—스트리아』의風光의地로서 有名한 『사르쓰부르그』에盛大한 藝術祭가開催되기로되여잇다。

藝術祭에는 現代世界樂壇에著名한 音樂家가 多數參加할豫定인데 現在決定한바로서는 伊太利樂壇의長老『토스카니』가 樂聖『베—토—펜』의 唯一한歌劇『피—데리오』及『와그너—』의『歌匠』의 演奏를 指揮하고 名指揮者로서 알녀진『브루—노·왈러—』及『페리스·폰·와잉갈트너—』가『론돈·피르하—모니크·오—케스트라』를率하고『동·지오판니』『코시판·와리』及『피가로』의 演奏를行하기로되여잇다。다시『나치스』에 追放되여 目下『론돈』에잇는 世界的劇作家『막스·할트』의『파우스트』及『에브리만』의演出을擔當하기로되엿는데이것이『론돈오—케스트라』의 演奏와함께 藝術祭中에 白眉가 되여잇다 이밧게도 七個의『콘서—트』가『윈·피르하—모니크·오—케스트라』의손으로 演奏되기로되여잇다한다。

接地의 刹那

科學



現代文明과 電燈의 發達 (四)

東亞技術部 兪完昌

八、電燈纖條와人造絹絲

一八八四年『카—도네—』氏는 硝酸纖維素의 알콜 에테르溶液을 細孔隙出에依하야 凝固纖維絲製造하는 特許를 獲得하엿다 이것이 人造絹絲의 始祖일것이다 그런데 上記한바와가티 一年前 卽一八八三年 電球發明家『스완』氏가 硝酸纖維素로 炭素纖條製造法의 特許를『카—도네—』氏보다도 먼저獲得하엿다 이것이卽 一便으로는 電球工業의 土臺를 닥것고 一便으로는 人絹工業의 基礎를 잡어노은것이다『스완』氏가 一八八三年 發明한 硝酸纖維素의 理論은 今日의 人造絹絲纖維의 理論과 조곰도 差異가업는것이다 이때벌서『스완』氏는 이硝酸纖維素로 織物에 利用할 생각을 가지고 試驗的으로 自宇에서 使用할 座席을 製造하여 보왓다 그結果 意外의 훌륭한 織物임에 氏自身도 놀냇다 그리하야 氏는 이를 命名하기를『Artificial silk』卽『人造絹』이라하엿다 實로 人造絹이란 名稱은『스완』氏로부터 爲始하엿다

또한편 佛國에서는 저有名한『카—도네—』氏가『스완』氏와는 別個로『크로스오—』及硝酸纖維素의 研究를 不眠不休繼續하야 맛침내人造工業의 大成을 이루운것이다

九、電球와光線의本質

(가) 古昔學者가 主唱한 光粒子說에依하면 發光體는 光素라稱하는 微細粒子를 四方으로 一定하게 發散함이니 이光素가 吾人의 視神經을 刺戟할때는 視覺을 感起한다하엿다 此說은 저有名한『뉴—톤』[illegible]

그런데 和蘭의 科學者『호이겐스』氏는 此說에 反對하야 波動說을 提唱하엿고 一八六四年 英國大物理學者『맥스웰』氏는 光電磁波說을 主張하엿다 卽 光도 電磁波의 一種이라고 主張한것이다 其後X線도 光波와가티 一種의 電磁波임이 發見되엿다 如斯히 無線의電波 光X線은 다 電磁波의 一種인데 오족 波長의 差異에依하야 그作用이 서로 다르다는것이다 電磁波의 波長과 光線과의 區別을 表示하면 다음과如하다

電波	〇、一mu以上
赤外線	八、〇〇〇—八〇〇同
光線	八〇〇—三八〇同
紫外線	三八〇—一〇同
X線	一〇—〇、〇〇一同
γ線	〇、一—〇、〇〇一同

(mu는百萬分之一粍)

上表에依하면三八〇—八〇〇mu範圍의 電磁波를『光』이라는것이다 卽 吾人의 肉眼은 三八〇—八〇〇mu間의 波長을 各色으로 感覺하는것인데 또 다시 波長과 色彩와의 關係는 大略다음과갓흘것이다

赤	八一〇mu
橙	六四〇同
黃	五五〇同
綠	四九二同
靑	四三〇同
紫	三八〇同

俗稱 우리는 赤附近을 長波光이라稱하고 紫附近을 短波光이라 稱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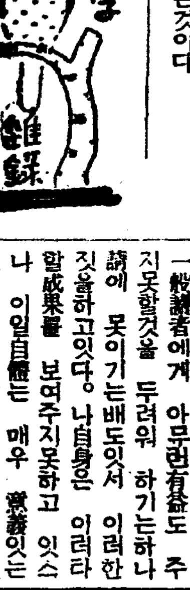
(나) 光의發生

우리가 日常生活에잇서서 가장 만히 目擊하는것은 發火의 發光일것이다 發火의 赤熱이 甚하면 甚할수록 溫度는 그에比例하야 上昇하는것이니 如斯히 物體의 溫度가 上昇함을 따라서 發光하는것을 우리는 溫度輻射라고 하는것이다 例를들면 暖爐의 溫度輻射 太陽의 溫度輻射는 日常吾人이經驗하는바 일것이다

(다) 白熱電球의光

白熱電球의 光도 溫度輻射로부터 發하는것이니 卽電球內에잇는 纖條에 電流를通하면 纖條가 發熱熾甚하야 이에光을發하는것이다

機翼氷結을 防止하는法



【론돈發同盟郵信】空中에서 飛行機의 機翼이 溫度의 激變으로因하야 氷結하고 그때문에 慘事가이러나는것은 從來에 屢屢히 經驗한바이나 英國에서는 이對策을여러가지로 考究하든中 맛침내 右氷結防止法을 近者에完成하엿다 따라서政府에서는 이新裝置를 目下建造中의 飛行艇及 旅客機에備設하라고 命하엿다 이考案은『에티—ㄹ·알코—ㄹ』의 性質을利用한것으로서 飛行機의翼端에 滲透性의 被覆을備置하고 거긔에『에티—ㄹ·알코—ㄹ』가壓縮空氣에 依해서 滲出되도록 되여잇다 操縱士는 自由自在로 纖維하나로『알코—ㄹ』를 移用식히고 이것으로因해서 機翼의 氷結을 完全히 防止할수잇다고한다 特히 機翼으로 少量의 液이 滲出하여서 機能을다못할때는 機翼을 終始알코—ㄹ로 적실수가잇게되여 잇다고한다 이方法으로 將來英國의 飛行機에서는 機翼의 凍結로因한 慘事는아주 根絶되리라고한다

閑話數題 ❷

—科學隨筆—

鄭樵陽

우리가 專門學術雜誌等에서보는 研究論文에서나 또는 우리 自身이하고잇는 研究問題에서나 이것이 都大體 우리生物體 或은 自然現象과 엇더한關聯을가지고잇슬것이며 또다시 엇더케 關聯식혀야 하겟는가를 自問할때 對答을엇지못하는때가 大部分이다。이것이 오직、愚鈍한、나한個人의疑問에 지나지안는다면 感謝하겟다。그러나 이런것이 오직나한사람뿐일가。아마 조금이라도 本質을 살펴보라는사람은 누구나다 이러한생각에 잠기지나안흘가。이것을푸려는者는 그리고 우리의 研究를 正當한길로引導해줄者는 오직正當한指導原理가 잇슬뿐이겟다 이러한原理를 우리는 哲學에서 求할수밧게업다。이런 意味에서 哲學에도 말한바와가티 歷史에나 이에關聯된 書籍을읽어보기始作하엿다。몹시 나의頭腦와 不足한 나의 努力으로는좀처럼 이크나큰일을 해낼것가지안타。그러나 悲觀하지는 안는다 步一步 健實한발길을 더디나마 압흘向하야 내딧더보려고한다。오직 끗치는 忍耐와努力이 길이잇서야한다。

우리의 關心事이여야할바는 다만、아에끄처지는안는다。지기를 에서바라마지안흘따름이다

社會構成의理論으로부터出發한 맑스主義는 階級鬪爭을 부르지즈며、科學의階級性을웨치고 한편 파시즘等은 科學의民族性을強調하고잇다。이러한時期에處하야 科學者는 도大體 엇떠케 몸을가저야 하겟는가는 決코 輕率히處斷할바는 되지 못한다。엇던階級에도 屬하지안흔 科學者도업고 엇던民族에도 屬하지안흔 人間도存在하지안는다。

科學者의立場으로서는 決코 政治的主觀에 사로잡혀서는아니되겟지마는 科學의階級性、民族性等도 어디까지든지科學的으로客觀的으로 論議되여야하겟다 今日에잇서서는 科學者로서 試驗管만을 마치줄수는업고 한個의 社會人으로서 政治와 經濟에對하야 큰關心과 正當한 認識이 업슬수업다。우리의周圍는 어지럽기짝이업다。그러나 어지럽다고 모르는체하기에는 周圍事勢는 넘우나 切迫해오지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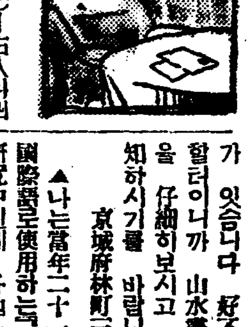
×

나는 요새 新聞、雜誌社에關係하고잇는 友人 或은先輩의請에못이기어 醫學 一般生物學에 關한問題를 隨筆도아니요 漫談도안인形式으로 글을 때때로 쓰고잇다。넘우나 의지못한 文章과 넘우나 整理되지못한 知識으로 一般讀者에게 아무런有益도 주지못할것을 두려워 하기는하나 請에 못이기는배도잇서 이러한짓을하고잇다。나自身은 이러타 할成果를 보여주지못하고 잇스나 이일自體는 매우 意義잇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잇다。科學의 通俗化 乃至 大衆化는 더욱이 科學의 惠澤을 每日가티 입고잇는 우리 世代 사람으로서는 가장 必要한일中의 하나이겟다。그러나 科學의 通俗化는 조흐나 卑俗化는 絶對로 잇서서는 안이된다。우리는 平易하게 眞理를 꺽지말고 讀者에게提供하여야하겟다。平易하게알니운다는것은 決코 眞理를 多少라도 꺽거서 알닌다는것과는 區別이 되여야한다。卑俗化하야서는안이된다。또다시 斷片的知識、話題를提供하기에 끄치지안코 系統을세우기에 힘서야하겟다。科學의通俗化를 생각하라할때 科學과對照되고 생각할수잇는 文學은 엇지하야 저갓흔 普及性과 大衆性을 가젓는냐가 생각된다 特히 東洋사람에게잇서서는 科學은 어렵고 힘든것이라고하야 文學과區別되여잇는感이업지안타。文學은 讀者自身까지도包含한 人間의 個人的或은 社會的인 日常生活의經驗、感情、心理等을 題材로 日常쓰고잇는 用語、形式을비려 表現、敍述되여잇는 것이다。그러나 科學은 어떤 局限된 사람에依하야 特殊한 設備와 裝置밋혜서만 觀察하며 實驗할수잇는 自然現象을 레—마로한다 그리고 그레—마는 흔히 日常經驗을 突破하야、될수잇는데까지 經驗으로부터 抽象된方法에 依하야 體系를세우고 術語나 數式으로서 表現되여잇다。여기 文學은 가까히하기쉬운것 科學은 겻헤가기어려운것으로 생각케된 큰原因이잇겟다。

新刊紹介

▲民衆時報 第十七號 大阪市東成區東小橋南之町三丁目八五民衆時報社發行 振替大阪五一二六四〇番 定價一個月二十錢 (旬刊)

讀者文社室



▲寄義鏞(一名寄雄)—右人과四五年前에 작별하엿는데 消息을 몰라궁금합니다。風聞에依하면只今東京에 滯在하고잇다는데 右人의 住所를 아시는분은 社交室을 利用하여 그住所를 下敎하여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겟습니다。 서울 林鐵洙

▲宜川讀者에게告함 十餘日前에 社交室을 通하여보앗습니다 貴下가 古山水畵와 牧丹畵屛을 賣渡코저하시는바 年代는 百年가량되엿다하시고 價格은問題하시엿스나 實物을보지안코는 價格을 말할수업고 또는 讀者의 寫眞이라도 잇서야 알수가 잇습니다 好不好를 알어야 할터이니까 山水畵의 落印姓名을 仔細히보시고 左記番地로通知하시기를 바랍니다 京城府林町三七 金泰燮

▲나는當年二十一才의靑年으로 國際語로使用하는『에스페란토』를 研究中인데 各地『에스페란토』이스트들과 通信交換을하고자함니다 通信交換을할이는通知하여주시요 에스페란토語로通信하면 더욱조흡니다 咸南新興郡加平面德里一〇四 李淑韓

▲前에發表하엿든 湖南映畵社는事情이有하와大田映畵製作所라고改名하엿스니 周知하심 그러고前에寄付金주신分은 또다시寄付金주시요 또金額에多少를不關하고 投資하시여 우리와갓치일을하실[illegible]에 問議하시요 大田府大東町 大田映畵製作所事務所

黃昏 【25】

韓雪野 作 / 安夕影 畵

예감(豫感) (一)

현욱은 한시간이상을 걸여서 단장을하고 좀 느저젓다는 생각을하며 차자왓스나 경재는 아직 잠이 깨지안엇다。

『아니 엄때 주무서요』

하며 그는 나물하드시, 그려나 우스며 경일어머니에게 말한다。

『어젯밤에 늣게 들어와서』

하고 경일어머니는 나죽하게 말하며 경재방에 들어가서 깨이란드시 눈짓을한다。

『지가 열시 다돼서 갓든데그후에도 오래 잇다가 들어왓서요?』

『그럼…아니 열한시쯤해서들어왓지 아마』

『무슨 볼일이 잇섯든게지요…가만두서요。이러나실테지요』

하고 현욱은 지금 거리에서 사가지고온꽃가지를 만지다가그 람스러운 꽃포기를 제뺨에다살근살근 문질르며 경재의 방문을 살작열고 들어간다。

그는 방안을 죽 살피고는필통에다 꽃을 꼬자노코 잠시그것을드려다보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나오며 경일어머니에게말하라다말고 어멈을 부른다。—

『어멈—이리 좀 와』

『내——』

『나 꽃병하나 사다줄레야』

『꽃병입쇼?』

『그래……』

『어듸 잇서요?』

『사기전에 수두룩하엿서』

『어떠케 생긴거애요?』

『그만두어……』

하고 현욱은 갑갑해하는드시 구두를 신고 휘 밧그로 나가버린다。

(온 녀자두!)

경일어머니는 혼자서 속으로 이러케 생각하엿다。다음순간、혼자생각은 더 대담해젓다——

(말광냥이두 분수가잇지。글세 시집도 오기전에!)

하고 그는 또 생각하엿다。

십년이나 이상인 남편을 섬기는그、더욱이 구식녀자인그에게는 사뭇 못마땅하게 뵈엿든것이다。너무도 인생의 즐거움을을 짜르게 지나보낸 그의가슴에는 시기에갓가운 비우슴이뻣다——

(흥 며누리호강은 꿈에도……)

하며 그는 돌아섯다。

그리며 경일이는 『벙어리 삼년、장님삼년』——말하자면 팔의고 양전하고 시부모 잘섬기사람으로 골르고 골라서 장가드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생각보다도 어느새 영롱한생각이。인생의 마시막향기가 사라지라는——오십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에 저욱히 오고갓다。

요새는 술이 취해가지고도『어、안돼、곤해、취햇서』하고 바지춤을 염이는 늙은 넹감이 한스럽게도 생각되엿다 말라가는몸에 한때의 흥분을주든 술도 인제는 신통한보람을 내지못하엿다。그뿐이랴 인삼록용이 조타고해도 때가지난인생에게는 무이조밧이나 다름것이업고 빗과 향기가 조타고해도 꽃을 이즌 늙은나비에게는 아모 소용이업섯다。

그는 눈앞헤서 나불나불 사라저가는 인생의봄을 하염업시 바라보앗다。

그때 현욱이가 꽃병을 사들고 들어왓다——

『어멈、정한냉수 좀……』

『내ㅡ、발서 다녀오슈。아씨두 참 혜교경주하듯 하시는구료』

하며 어멈이 냉수를떠왓다。

현욱은 병에다 물을너코 꽃을 꼬자가지고 경재방으로 들어갓다。경재는 아직 잠이 깨지안엇다。

현욱은 꽃병을 그의머리ㅅ마테노코 그의얼굴을 한참 유심히 드려다보앗다。붉으스레하고 약간 찌푸린듯한것이 다소 신열이 잇는드시뵈엿다。그는 물무든손을씻고 살며시 경재의이마를 집헛다。

사실 경재는 몸이 좀 찌부듯혓다。어제밤에 려순의주인에서 늦게돌아온곳도잇섯지만 몸이 좀 거북해서 두벌잠이 들엇든것이다。

허나 깁흔잠은되지못하고 수다스러운잡만 오고가고하엿다。——눈물젓든이잇고 길나라뵈을흘뎃이잇든 공상들이라가든 그런곳으로 그는 거닐고잇섯다。

얼마후에 려순이가 왓다。공상은 변하야 어떤 사상집이되엿다。두사람은 엉크를 마조안저잇섯다 허나 려순은 아모말도업섯다。꽃선것갓기도했다 급시、사라질것갓기도했다。

경재는 순간 구득심으로 그의손을 잡으려했다。바로 그때다。누가 그의머리를 툭 때렷다。현욱이가 그의이마를 집흔것이다。

경재는 놀라 잠이깨엿다。목에 선뜻이 흐르든것을깨닫으며 얼굴을 찡그렷다。그러며 현욱의손을 뿌리치드시 머리를 돌렷다。

『이러나서요。지금 몃시애요을세……』

朝鮮映畵十五年

初創期에서現在까지 —走馬燈에비친記憶—

⑧ 白夜生

아프로 이활영소에서는 조선영화계의일홈을 총집합할 심산을가지고 이사람저사람을 교섭하는모양이라는데 여기에리필우씨의 수완이 주목되는바로 리규환씨와라운규씨와도 수차 회견이 잇슨모양이고 긔타 수씨와도 회견이잇서 어찌 결말이날지 흥미잇는 일이요 경성촬영소로서는 토ㅣ키ㅣ라하드래도 불완전한 시대극을 제작하는데 실증도 낫슬것이니 아프로 현대극을 제작하거나 시대극도 본격적으로 굉장한 설비가업스면 큰효과를 못보아 손해를 보지안흘가하는 사람도잇다 아프로 『심청전』을 토ㅣ키로 촬영하랴다가 다음으로 미루우고『홍길동전후편』을제작할뜻하는데 어떠한물건이될지 주목할만하다

그래도 조선안에는 아즉도촬영소라고는 이백평도 될락말락하는 이경성촬영소밧게 업스니 영화계가 한심한터이나 리필우씨의 노력이 어듸까지 밋칠지 영화게에서 주목들을 하는모양이다

리필우씨나 리명우씨나 이제는 자긔의 사업을할때가왓다고 볼수밧게업다

지금까지 영화게에서 쓴맛단맛을다ㅣ본만흔 조선영화의장래를위하야 어떠한 비약을보히지안으면안될때가오지안는가과거를회상한다면 깃븐일도 눈물이된다 이눈물을 눈물로만 흘려보낼것인가 어떠한결정이 업스면 인생백년이란 아모리 공로가잇고 공헌이잇드래도 허되일이요 자긔자신으로서 하용업는 생각이들수도잇다 이것이 하필 영화에종사하는사람에게뿐이리요

조선영화게에 신인(新人)이나왓다 이들이 아프로너떠한 결실이잇슬지모르나 새로운인망(人望)을가진것은사실이다

그것은 춘풍(春風)에서 그들의 실적이 나타낫다고도 할수잇스니 비록 조선에잇서서 조선사람의 호흡에맛지안는 장면이잇고 얼마가자긔가 연구시대에 당돌한대로시험한데에 끄친데가 잇스나 관중을 긴장식힌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아프로 촉망할수잇는 미듬을가지게한 감독박긔채(朴基采)와 촬영긔사 량세웅(梁世雄) 량씨를 이 이야기에 빼여놀수가업다

량씨는 일본내지 영화게에서 다년간 고초를겨거가면서 연구에노력을 하든이다 이들이 비록 고토에와서 생소한영화게에 첫번발을 드려노핫다해서 어느때는 비난 공격이잇다하드래도 그당자는 우스며그활살(矢)을 마지할줄아나 당자역시이사회의 분위긔를 이저서는 안될것을생각한다 그것은 압호로도 그들과가티 조선의 영화계를위하야 헌신하고자 도라오는사람이 잇슬것이니 모름직이 박、량、량씨의 금후 행동이 일반의 주목의 초점이되엿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으로아는바이다

『춘풍』은 어느점으로보아 조선영화계에 일종의 파문을주지안엇다고 볼수는업다 그래서 박、량、량씨의 금후의작품이 그이들의 장래를 말하는 큰 수수께기가되는것을 그들자신도아러줄것이로되 일반영화팬의 긔대에어그러진바가업기를 바란다

◇

조선의 영화계는 임이십오년이너믄는 력사를 가지고 잇다

그러나 십오년이라면 짧지안흔 긴ㅡ세월이다

이동안 조선영화는 완전한경지(境地)에 이르럿는가

그러치안으면 조선영화는 조선영화로서 어떠한 특이한 경을발견하엿는가

이것은 일반영화인으로보담도 이사회인이면 기피생각할 의무가잇다

왜우리들은 이조선영화를 내여버려두엇는가 또 우리는이영화를 경솔이아럿는가 모두가 우수운 일이다

조선의 영화는 십오년ㅣ상ㅣ의려사를가지고잇다 그러나 크게사랑할수업는과거다

다만 시련기(試鍊期)의 울분한 그림자밧게되지안는다

누구는 말하리라

그러케 힘올드려 싸하노흔성을조그마붓끄트로 허는놈이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조선영화에 만족하엿는가

다만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영화예술(映畵藝術)의 길로거려나가는수밧게업다

다만 예술영화의길은 이제부터다

정중하게 생각하지안으면 안된다 개인의 조그마편견(偏見)을내세워서는안된다 또개인의영웅심영화뿌로커ㅣ들은 다ㅣ물러가야조선영화게는 제대로 되여나아갈것이다

그만한사람、그만흔영화인들이 각기 발로왕식하고 어느큰물질의배경이 잇스면 결코 비관할수업는 미래가 잇는조선영화계다 그리고 모름직이 영화인들은 서로사랑하라 관대하라 그리고 어떠케하면 조선영화가세계영화의 수준에 이르도록할수잇는가를 힘써 연구하지안으면 안될줄안다

끄트로 이조선영화게십오년이라는 커ㅣ다란 제목을 걸고빈약한 내용을가지고 그래도 꼭 허이른 제씨를 화제에올려 중언부언햇슴은 실로 죄송하나 필자로서는 조선영화계의장래를 위하는 미성이엿기 이에 량해를 바란다……필자(끗)

發聲映畵小考 (二)

—特히올·토ㅣ키에關하야—

林 唯

映畵가 藝術로서 發展한 歷史는 舞臺演劇과 經路를 달니하고 따라서 그精神까지 다른새로운『드라마』形式에서부터 發展하엿다고 할수잇다。

如上한 精神미려서 出發한活動寫眞은 急速한 角度로 寫眞術의 技巧的進步와 相俟하야漸漸舞臺演劇과는 全혀 다른特殊한映畵的 形式으로서 發展하여와슨것이다。

現今우리가 每日보는바와가티 今日의 映畵는 그形式에 잇서서全然舞臺劇과는 別個物의『유니크』한藝術로 創造되엿다는것을알수잇는것이다。

그리고 또映畵는 繪畵와文學를 密接히 하여와슨것이다。왜 그러냐하면映畵가 活動寫眞으로서 純藝術的事實에 끄처다고하여도 繪畵와文學는 엄연한藝術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藝術로서의 映畵와 繪畵의交涉은 映畵가 藝術的으[illegible]限에서 그當初에잇서서 繪畵와가티 美術的이 注目되엿든것은 當然한事實이겟지만 映畵가繪畵와가티 平面藝術에서 떠나 繪畵와다른 時間的藝術로써 發展하엿슬때에는 映畵의 特殊性이 問題되지를 안엇든것이다。

即 換言하면 映畵의繪畵的畵面乃至 한가지한가지의 컷트構圖의 美術的과 興味는 그自體의意義가잇는것이아니고 映畵全體의 進展上그한場面乃至한컷트의 指示하는位置에 따라 決定되는것임으로 繪畵와가티 美術的이 問題되는것이안이고 映畵的으로 映畵全體의 時間的發展과 流動的으로 보여지는 藝術的意味가 잇지안으면 아니되는것이나。

藝術로서의 映畵가 複雜또는 密接히 藝術과 交涉하고 映畵의 藝術性에 多面的問題를 提出할것은 두말할것업시 映畵와文學演劇藝術과의 密接한 關聯에 依存하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映畵는 繪畵와 달니 그것이 演劇과 表現하는 點에 이어서 時間的이고 따라서 文學及演劇藝術도 事件의 進出乃至敍述의 展開를 表現하는點은 映畵와가티 時間的이기때문이다。

勿論 舞臺上의 俳優의演技、背景、照明等을 그대로寫眞的再現하고 俳優의臺詞를『[illegible]』에너어 그것을 相互히 適當하게排列하여도 映畵가 되지안는바는 아니다 如上과가티 視覺的도되고聽覺的도되는 舞臺藝術의再現이 視覺的또는機械的으로 如何히 正確하다할지라도 그根本的으로正確한表現은 不可能하다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하기때문에 映畵는 舞臺的世界를脫出하야 視覺的으로發展하여와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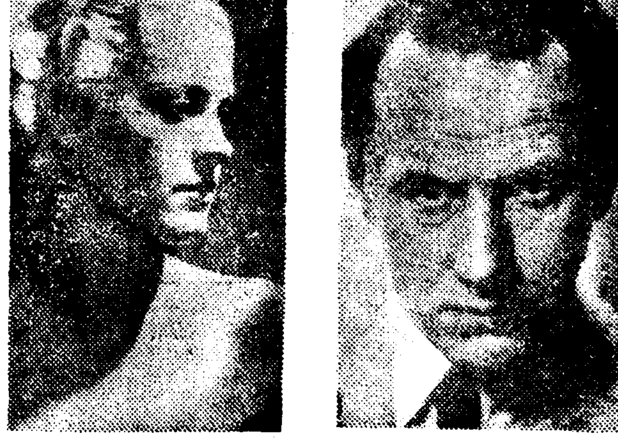
映畵的方法에 잇서서『크로즈압』『캇트백』의發見及『移動撮影』의技術的發明은 如上한關係에 順應하야 그것을利用하고 또는超越하랴고하는데서 發生하엿다 이를수잇다。

『크로즈압』『캇트백』『移動撮影』等에서成立되는『[illegible]』이 舞臺藝術에서는 到底히 차저보지못할 映畵藝術의 特殊한表現手段이라 안이할수업는것이다

即換言하면 映畵는『舞臺的映畵』에서 脫出하야 視覺的世界에그獨自의技巧的表現을 發揮하엿다는것이다。

그런데 토ㅣ키(發聲映畵)의發明은 技術的으로 現實外界의視覺的乃至聽覺的再現을 機械的으로可能케하엿다。

即토ㅣ키는 在來의 映畵藝術의 動向을 逆行하야『舞臺藝術의길』노 急速히 轉回한感이 업지아니하다。



팡크博士와 에베라ㅣ孃

自然科學者로서映畵人으로 方向을 고친아놀드『팡크博士는山岳映畵의 巨匠으로名聲을날리고잇다。그는 今番東洋의山岳을 映畵化하고자 日本에왓는데그映畵에出演을爲하야 新進에베라ㅣ루ㅣ孃도딸아왓다寫眞은그兩人

佛映畵界三名物 (二)

언제나明朗한才子로서 『헌處女地』監督 듀뷔뷔에

듀뷔뷔에는 才人이다。놀랄만한 才人이다。어떠한것을 製作시키든지 一流의 作品을 맨드러내인다。그는 다만 一個의 才人으로만도 말하기 어려운사람이다。그의 만흔 作品이 다各各 그대로의 價値를가지고 잇는것은 疑心업시 그의 빗나는 個性、굿세인 個性을 말미암는것이다。그의 武器는 決코 남으로부터 빌어 오거나 꾸어 온것이 아닌 까닭이다。『巴里、伯林』의健康도『골다』의 愛慾도『홍당무』의 산뜻한 感傷도『商船테나시티』의 抒情도 그러고『모든사람나스의밤』의趣味도 모도다 듀뷔뷔에自身의 것임에 틀림이업다。

그는 그의 모든作品을 通하야 何等一貫한 主義主張을 보이지안하나 그러타고 그를 固定한 思想이 업다든지 信念이 업다고 結論지어서는 되지안는다。그가 그것을 보이지 안코자하고 또 보일 必要도 認定치 안하야 그는 그러한 思想과 信念밧게 일을 하는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케 질거웁게 映畵를 製作하는것이 아닐까?그리고 아조 빼가 업는것은 아니나 그의 作品을 그 自身의 빼로서 構成하는것은 아니지마는 그個個의 作品을 보면 다각각 個個의 빼로서 支ㅁ되야잇지 안한가?

듀뷔뷔에는 언제든지 映畵속에서 晴明한 氣分을 맨드러준다 그 氣分이 실로 조흔것이다。그것만 잇다면 다른것 업서도 無妨하도록 그야말로 아름다운 氣分이다。例컨대 『巴里、伯林』中 大急行으로 巴里를 구경시키는 遊覽自動車의 挿話 그스피드와 諧謔과 템포가 비저내는 晴明한 氣分이라든지『골다』中 젊은 男女가 시내ㅅ가 바위우에 누어서 볏을 쪼이고 시내ㅅ소리를 듯는 光景의 描寫 그 無言의 한 場面이 주는 晴明한 氣分이라든지 等等이다。

헌處女地

카나다의 原始林속에서 일을하는 푸란소와、파리듸가따뜻한봄날 七年만에 거리로나왓다가 우연히 아는사람과 그누의마리아를 만낫다。마리아는 그동안 아조커서 색시래가 백이게까지되엿다 푸란소와는 그들을 작별할때 그들의집으로까지 들리겟다 約束한다。그래서 거리로부터 한참멀고도외따로떨어저잇는 그사람네집으로 차저갓다。그런데 그보담도 몬저 그사람네집에는 로란소라고 아메리카에 가잇든 靑年이 놀러와섯다。그래서 그들 靑年男女가 질거운 하로를 지내엿다。

그해겨울 푸란소와는 마리아가 보고시퍼서 친구들의 권고도 듯고 눈길을 헤치고 뒤어나와다。그러다가 고만 蹤跡도모르게 어데로 자최를감추어버리엇다。마리아는 애를태운다。해가 지날사록 그래우는 애가 살아저지 안는다 로란소가 다시차저와서 아메리카로 가치가기를 권한다。푸란소와를 주인눈에 對하야 恐怖와憎惡를 늣기는 그는 마음이 動하얏다。

그러나 그의 母親이 돌아간다。그葬禮날 牧師의 늣기운 말을 듯고서 고만 아메리카로 가기를 斷念하고말앗다。

라디오

二十九日(土曜)

◇午後六時 童謠獨唱 一、고요한 강까 二、자장가 其一 三、네눈방울 四、순이무덤 五、자장가其二 六、서울구경 七、물새발자옥 朴哲鉉
伴奏 綠星童謠管絃團 / 作曲及指揮 柳基興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女子專門學校卒業生에對한座談會
司會 黃信德
出席者 京城保育 崔善愛 / 中央保育 李圓熙 / 女子醫專 黃善淑 / 梨專文科 林敬愛 / 同 家事 方仁達 / 同 保育 崔敬姿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春眠曲 二、길軍樂 崔貞姬 洪笑月

◇同九時 連續古談『金蟾』(一) 庚秋岡

三月一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映畵이야기 成東鎬

◇同一時二〇分(東) 吹奏樂 一、行進曲『蘭花』 二、意想曲『滿洲의回想』 三、行進曲『祝賀』 陸軍戶山學校軍樂隊作曲 / 陸軍戶山學校軍樂隊

◇同六時 피아노獨奏 一、即興幻想曲……쇼팡作曲 二、練習曲……作品二五의九 三、허거리舞曲第五부람스作曲 四、화려한大圓舞曲…쇼팡作曲 作品十八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金炯佳

◇同六時三〇分 記念講演 滿洲國建國紀念日에當하야 金碧旭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가)진양조(나)중모리(다)자진모리 二、倂唱(가)短歌滿浪歌 (나)唱劇調赤壁歌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京劇『장엽打鈴』全一景 (配役)林泰春…金海雲 朴氏…崔庚善 客甲…李流星 客乙…吉七水 客丙…金鎭英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朴斗星

◇同八時四〇分 재비가外 一、제비가 二、유산가 三、달거리 李飛鳳 柳開東

◇同九時 宗敎音樂 一、合唱 (가) 내主를가까히…월손作曲 (나) 救贖하세…에쎌作曲 二、獨唱『아베마리아』…슈버트作曲 (李順伊) 三、合唱『天主를讚揚하라』…구ㅣ노作曲 四、獨唱『새예루살넴』…아담스作曲 (李仁範) 五、合唱『主를讚揚하라』…아슈프ㅣ드 作曲 六、피아노獨奏『前奏曲』…라하마니노프作曲 ([illegible])
新門內敎會 指揮 金亨俊 / 피아노伴奏 金信福

◇午後一〇時 朝鮮交換放送 朝鮮으로부터雅樂ㅣ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ㅣ 一、萬年長歡之曲 (歌樂)(가)界面三數大葉 (나) 言樂 (다) 編樂 二、堯天舜日之曲 (細樂)
李王職雅樂部員 /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第一放送

◇正午 (東) 記念講演
◇午後一時一〇分 (東) 講演
◇同二時一〇分 (東) 라듸오聯曲
◇同六時 (大) 라듸오漫談
◇同七時三〇分 (滿) 滿洲音樂
◇同八時二〇分 (東) 講談
◇同八時五〇分 (東) 사랑의法則

二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孔明歌 四、山念佛 五、노래가락 白牧丹 鄭晶紅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 (第三回)『調理理論』(二) 金浩植

◇同六時 童謠와唱歌劇 一、童謠 (가)、齊唱방패연 (나)、同조꺼난동생 (다)、獨唱집업는고양이 (金福任) (라) 齊唱집보는소녀 白鷗會 指揮 林炳裕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原始人의人生觀』 趙炳俊

◇同八時 音律『寒山會像』 玄琴李彦植 洋琴李承煥 奚琴池龍九 短簫洪斗燮 細笛高載德 杖鼓 李章夏

◇同八時三〇分 古談『夢中奇緣』 車靑吾

◇同九時 流行歌 一、어머님품으로(金貞) 二、新我(李) 三、떠나가신님(金) 四、箕城의봄(李) 五、靑春의『란데뷰』(金貞) 六、눈물의港口(金) 七、섬색시(李) 八、힝야라打鈴 金貞九 李花子 金蘭秀 崔仙 伴奏 DK管絃團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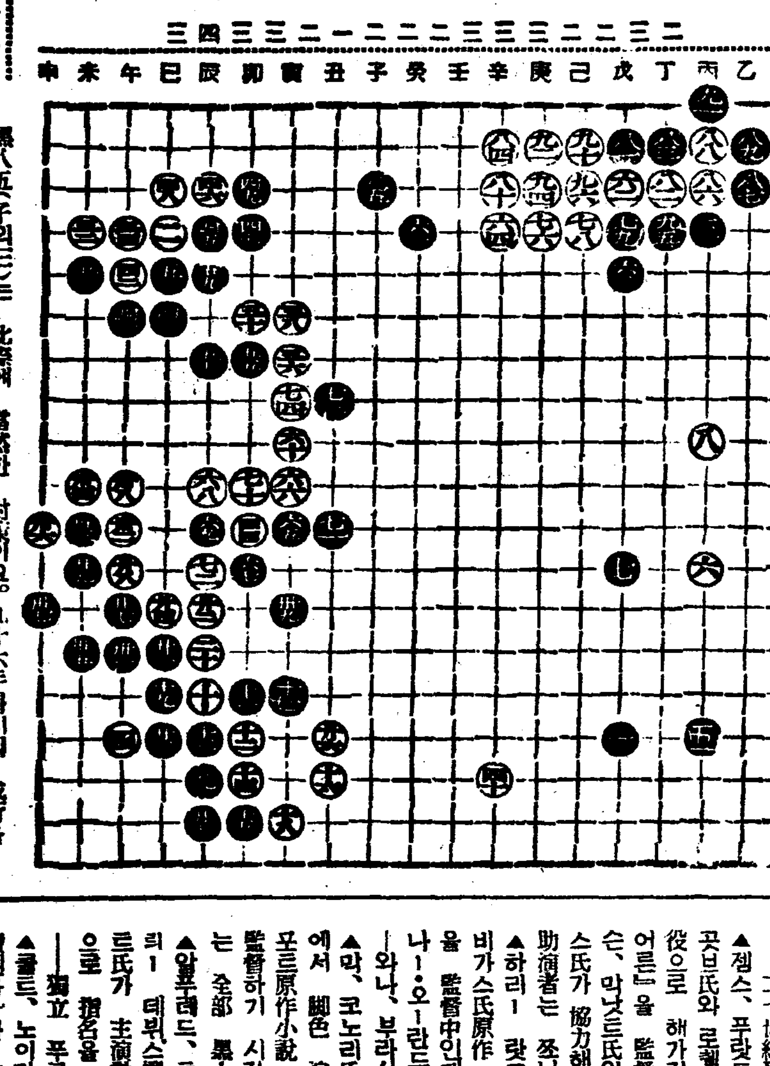
◇午前一〇時三〇分 (東) 婚人時間
◇午後〇時〇五分 (德) 婦謠
◇同二時 (東) 婦人時間
◇同六時 (名) 發明物語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 合唱 詩吟 太夫 浪花節

三月一日 (日)
二月 辛卯 小 (八日)
壬午·木·星·定
●吉凶禁忌 時剋은午時 坐向은正南 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午時開市納財安葬에宜함
●驚蟄六日(舊十三日)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本社主催 十傑 圍碁對局譜 =6=

白 丁奎春
黑 權秉郁

●八一	戊의二
○八二	丁의三
●八三	丁의二
○八四	辛의二
●八五	子의三
○八六	丙의三
●八七	乙의三
○八八	丙의二
●八九	乙의二
○九〇	己의二
●九一	丙의一
○九二	庚의二
●九三	己의三
○九四	庚의三
●九五	丁의四
○九六	己의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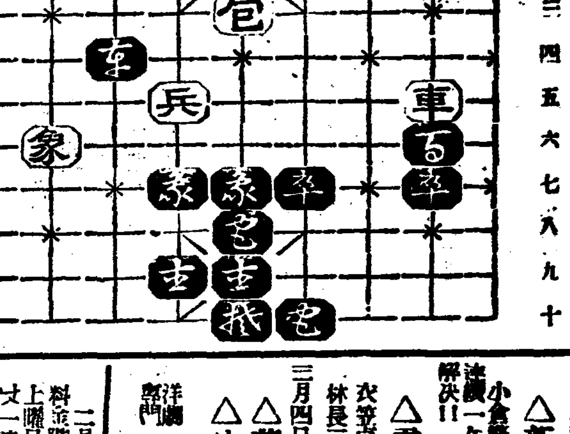


◆觀戰 : 談
黑八五(子의三)는 此際에 當然한 對應이요。九十六手까지의 成行을 豫料함에 感服치아니치못할지로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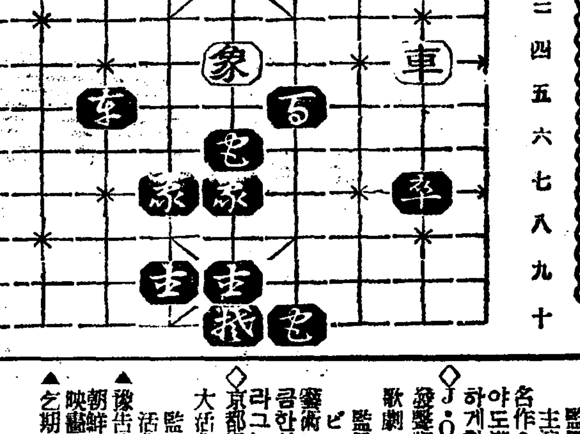
先手 兵一段 李在鳳 / 漢 金漢榮

◀第八十手圖▶



◀第九十手圖▶

己五兵ㅡ戊五
庚四●ㅡ庚五
八三包ㅡ戊六
丁七●ㅡ丁六
乙五車ㅡ乙四
丁六●ㅡ戊六打包
戊五兵ㅡ戊六打卒
戊八●ㅡ戊六打馬
呼將
辛六象ㅡ戊四
乙六●ㅡ丁五



海外映畵消息

『아메리카篇』

—메트로—

▲W·S반·다익氏는 크락·케이블氏와 자넷트·막도날드孃을 主役으로 해가지고『桑港』을製作키로 되엿다

—파라마운트—

▲윌리암·사이라氏는 첼라·웹자作品인『달콤한라진』을 監督하는데 出演者는 핸리·혼다氏 마라렛트·사라방孃等

▲오ㅣ브리ㅣ·스콧트氏는 첼라웹자作品인『팜·스푸링스』를 監督하고 잇는데 出演者는 푸란시스·랑포드孃 서카이、스라링氏等

—RKO라듸오—

▲그렌、트라이온氏는 말과개를 主人公으로하는『모다純血種』을 監督하는데 出演俳優는 모로니、올센孃、존、알랫지氏等

—二十世紀폭스—

▲젬스、푸랏드氏는 어빈、S곱브氏와 로퀘、하드손孃을 主役으로 해가지고『모든사람의어른』을 監督하는데 파라!스氏가 協力해 지은 喜劇物로 助演者는 조니、다운스君等

▲하리ㅣ 락크만氏는 알、다비가스氏原作『서커스촬리찬』을 監督中인데 主役은 워ㅣ나ㅣ·오ㅣ란드氏。

—와나、부라더스—

▲마、코노리氏는 氏가 舞臺에서 脚色 演出한 복부랏드포르드原作小說『綠色의牧野』를 監督하기 시작햇는데 出演者는 全部 黑人

▲알후레드、E、그린氏는 베리ㅣ 데뷔스孃과 조지 부렌드氏가 主演할『金矢』의 監督으로 指名을 바덧다

—獨立 푸로닥숀—

▲클트、노이만氏는『演劇은繼續된다』를 監督하는데 出演者는 보비ㅣ 부린君等이다

英國篇

—부리티쉬 인터나쇼날—

▲촬스、바듸、로자스氏와 메리 부리안氏를 主演者로 하는『百萬番에한番』의撮影이 完了되엿다 監督은 하퍼、웟로氏 助演者는 W、H、베리ㅣ氏等

▲옷토、크루가氏主演의『열째번의 사나히』는 製作되는데 그相對役은 레오노라 코베트孃

▲허뻐트、부렌논氏는 옷토、크루거氏를 主演으로하는『危險한生活』을 監督

—쥬리아스、헤이겐—

▲표、파우라、미아氏의 有名한 戲曲『에리사가머물러와다』가 헨리、에드와드氏로부터映畵化되는데 出演者는 베티、발포어孃 시모아、휘스氏等

▲살롯홈스映畵『銀炎』의 主演者로 아더 원토나氏가 當選되얏다

▲올릿男爵夫人의 新作小說『나폴레온의 스파이』도 近間映畵化되다고

—부리티쉬、라이오—

▲알부로ㅣ스、앤드、히스、엠파시、오케스트라는『부드러운빗과고운音樂』에 出演하기로

—고몬、부리티쉬—

▲『探偵』이 完成되얏다

▲노ㅣ바、필빈孃主演의『젼、그레이夫人』이 로바트、스티븐손氏에 依하야 製作되고잇다

▲『도사랑이다』라는 假題아래서 제시ㅣ、마슈스孃及쏘니ㅣ헤일氏 主演과 빅터、사벌氏 監督으로 한作品이 製作되얏다。

▲클트·지오막氏는 有名한歷史人物『칼리오스트로』를 主人公으로 해가지고 近間 製作키로

▲오ㅣ스르텔리앤、푸로닥숀스氏와 共同製作으로『날으는醫師』를 마일스·마다氏가 製作키로

左記の如く變更に成り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御願致します。
二月二十六日より三月三日まで
上映時間表
嘘情 [illegible]
新婚三疊打 [illegible]
雪之丞變化解決篇 [illegible]
一、蒲田超ナンセンス映畵
△嘘 情
山口勇、小倉繁、[illegible]
二、蒲田超ナンセンス映畵
△新婚三疊打
小倉繁、出雲八重子
淸純一ケ年波瀾曲折の物語り愈々解決!!
△雪之丞變化解決篇
衣笠貞之助監督作品
林長二郎主演
三月四日より封切の二大待望篇
△花嫁くらべ
△め組の喧嘩
洋畵部 浪花館

二月二十七日부터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每日밤七時十五分開映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劇 正邪의兄弟
監督 [illegible]
主演 파ㅣ도라이데루氏
名作으로서全篇의名場面이니 아모쪼록에어분들은놋치지하게할마치ㅣ名篇中에도名篇!
◇J·O·スタヂオ日本ビクタㅣ發聲版
歌劇 百萬人의合唱
監督 富岡敦雄氏
ビクタㅣ專屬歌手總出演
藝術노래이야말로靑春男女의달콤한사랑에멜로듸을보고드르시라 그누구가生覺하엿시름樂映畵
◇京都撮影所超特作品
大活劇 虎狼의巷
監督 井手錦光之助氏
活劇王 高田稔氏
▲豫告‖三月一日브터晝夜六日間
朝鮮映畵 薔化紅蓮傳‖그날밤의眞心
▲之期待‖太平洋攻防戰‖洞窟의女王
鍾路 桃花洞 電話光一三三番
桃花劇場

二月二十八日부터
每日三回 (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廿分)
◆콜럼비아社超特作映畵
巨匠요셉·폰·스탄빠ㅣ監督
文豪떠스토에푸스키ㅣ原作
罪와罰
메타로레이 主演
◆콜럼비아社超特作映畵
世界文壇에驚嘆의旋風을이르킨드名作!그러고다시映畵藝術의精華로서光輝잇는神品이誕生하다!
안사잔 主演
珍優나포레온
◆P·C·L超特作映畵
成瀨已喜男監督作
昭和十年度優秀映畵第一位當選의最高作
妻よ薔薇のやうに
千葉早智子主演
萬丈氣焰을吐하고잇슨日本映畵의最高作
(大阪封切) 晴朗活潑、耳明、大陸非常線、わたしがお嫁に行つたなら
全鮮第一 映畵殿堂
團成社

二月二十八日からもふ最初の顏見世!
名畵撮ひの御家族週間
階下席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プログラム
ロイド日本語でぺラぺラとまくしたてヤンヤと笑はせます!!ロふ事請すとお腹がデングリかへる面白さ!! パラマウント提供PCL專屬スタㅣ一輩の總動員にもわかる日本語トㅣキㅣ
名喜劇 ロイドの足が第一
ハロルド·ロイド 主演
クライド·ブラックマン 監督
RKO社超特作ウィーダ女史原作 世界的名小說の映畵化 天才少年畵家と愛犬の淚の物語
名畵フランダㅣスの犬
少年名優フランキㅣ·トㅣマス
名犬ライトニング嬢主演
監督エドワㅣド·スロㅣマン
時代劇 風流上州男
大都映畵特作 益田晴夫監督
海江田讓二·月宮乙女主演
漫畵·パラマウント特作漫畵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畵劇場

"文明病"結核患者 年復年增加形勢

平南道內昨年末現在統計가 勿驚! 二千四百餘名

【平壤】평남도위생과에서는 도내가의로긔관의 진찰부를통하여 작년중의 결핵환자와 사망수를 조사한결과 발생환자는 조선인 이천팔백사십오명 일본내지인오백팔명 외국인일명 합계삼천팔백사십오명으로 그중에서 사망률은 조선인구백구십사명 외국인일명 일본내지인구십사명 외국인일명 합계 일천팔십오명의다수에 달한것이 판명되여 전년보다 상십명의증가이다

또십년말현재환자는 조선인일천구백오십일명 일본내지인 사백팔십사명 합계이천사백사십이명으로 이것을전년과 비교하면 배이상에달하여 일천이백오십구명의놀라운 증가를보게되엿고따라서 결핵요양긔관설치를일반은 갈망하고잇다한다

住宅難緩和코저 用地貸附提願

【會寧】작년가을부터 약진적으로 발전되여 나아가는 회녕시가에는 인구가 격증하여 주택이 극곤난하게됨으로 일전에 회녕유지 진유갑(秦酉甲) 회녕상공회(商工會)회두 전전정(前田政) 양씨는 회녕번영회설회 명의로 회녕역전 철도용지 이만평의 대부원을 북선철도국에 신청하엿다고한다

蹴球大會延期 來七、八兩日로

【雲田】경의선운전에서 운전주구부주최로 이월말일과 삼월일일에 관서청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 주최측형편에따라서 오는삼월칠일팔일량일로연긔되엿다한다

元山의活況을反映 昨年中荷物動態

發着二萬六千噸 比前年同期約二割의增加로

【元山】발전도상에 잇는 관북 유일의 대항구도시 원산의 발전상을 여실히 표현한 작년중 원산역(元山驛)의 하물상황(荷動狀況)을보면 발송화물은 일만삼천삼백키로톤에 도착화물은이만사천오백키로톤으로 합계가삼만륙천팔백킬로톤된다 그수입은 사만구천오백원인데 전년동긔에 비하야발송화물에잇서 일천륙백키로톤 도착에잇서 사천이백키로톤의 증가로 전체에잇서서 근삼할의 격증이다

발송화물중 수위는 천내리행(川內里行)의 석탄(石炭)삼천륙백키로톤이고 버금은 진남포행(鎭南浦行)의 금광석(金鑛石)이 천칠백키로톤이다 제삼위는 원산특산품인 생명태(生明太)일천상백키로톤이다 그리고 잡화(雜貨)가 이천백키로톤이된다

이발송화물에잇서서 원산특산품인 명태가 작년도에잇서서 흉한계속으로 포화이 반감되므로말미암아 그예정수입에잇서서 지난일월중에만 사천구백원의 감소를 초치하얏다고한다 이것으로서만도 명태수확의다소가 원산경제계에 밋치는영향이 큰것을 알수잇다고한다 그리고 도착화물의 수위는 세멘트의 팔천키로톤 대두(大豆)이천삼백키로톤 목재(木材)일천칠백키로톤이 각각증가되엿다고 한다

農業實修學校 今春에設立實現

【金浦】김포군 당국의 다년현안중에잇든 중견청년강습소(中堅靑年講習所) 설치문제는 그간 도당국의 충분한 양해를어더제방공비에 착착진행중이든바 최근에와 장로교(長老敎)의 노력으로 농업실수학교(農業實修學校)로 승격케하야 금년 사월경에는 틀림업시 동교건축공사에 착수하리라는데 그공사가 완성될때까지는 김포읍내 명륜학부속건물에서 림시 개교할계획이라하며 수용할 학생은 약사십명이라하며 학년은 일년제로하고 재학중에는 동교기숙사에잇게하야 자급자족의 제도를밟칠것이라고한다

遺難同胞同情 十一圓餘寄託

【沙里院】사리원시내 포목상 오득룡(吳得龍)씨는 만주국 흡안현(滿洲國撫安縣)일대에 조난동포들의 생명이 날로 풍전등화가다는 비참한 소식을듯고 씨의상점에서 장날매상고 일부 십일원사십전을 조난동포에게 보내달라고 사리원긔우회(沙里院記友會)에 긔탁하엿다

元山至急電話 自二日受附開始

【元山】원산우편국의전화는 재래식이기때문에 일반전화가입자의불편이 적지안햇다 이에일반부민은 하로밥비 그불편의제거를요망하야왓거니와 원산우편국에서도 그점을집분생각하고 과반래공전식전화긔(共電式電話機) 설치를 준비중이던바 그준비도 대부분완성되엿스므로 오는삼월상순경에는 실시하기로되엿다고한다 이에 원산우편국에서는 공전식전화교환에제하야 실시변도 전화지급개통의신청을 래이일부터실시일까지의신청을안수부를 개시하야 그결과를보아서 계통에정수를 공평히 할당하기로 결정하얏다는데 희망자는 전긔우편국에서 규정한신청서를 수리하기를바란다고한다

舍人에又復火災

◇草家二棟十一間과 穀物二十石을燒失

【舍人】지난 이십오일 오후팔시반부터 평남 순천군 사인면 사인리 김찬우(金贊禹)의 집에서는 원인모를 불이 이러나 때마츰 부는바람에 것잡을수업시 초가 삼동일간과 곡물이십석이 소실되엿다는데 사인소방조는즉시 출동원으로 소화에전력하엿스나 물이업서 원만히 효과를발휘지못하야 대소동을이르켯다한다

前科四犯의犯人 格鬪끄테逮捕

【元山】지난이십칠일 오후네시경 원산서 수사(手寫)형사가 원산해안통정목 강원필씨집압흘 지날지음에 미리부터 수사중이던 주소부정의 전과사범의 서장손(徐長孫)(三三)과 우연히 맛나게되여 곳 그를 붓들고 그가잇든 집으로 가택수색을 가든동 상동일배사십이번지 부근의 인적이희소한곳에 이르럿슬때 그는 돌연 형사에게 달려들어 반항하얏다 그래서 약반시간동안 일대격투를 연출한후에야 겨우 체포하얏다고한다 이로말미암아 수시형사는 얼골의수개소에 부상을 바덧다고한다

"登記"에"實質關係"變할效力이업다

惡質의土地詐欺漢에걸리엇든 原告에게勝訴判決

【平壤】평양부대찰리(大察里)오실칠번지 김두희(金斗熙)는 친부 김근수(金根秀)를 법정대리인으로하고 부내상수구리(上水口里)일백팔십륙번지 리태교(李台敎)와 경성남대문통(京城南大門通)조선식산은행을 상대하여제긔햇든 토지소유권이전등긔 소유권보존등긔 근저당권 설정등긔말소수속리행청구소송은 그동안 평양지방법원도광(稻光)판사의손에서 심리중이든바 이십팔일등긔에 실질관계를변할효력이잇는이상 원고의 주장에는대항할수업다는 리유로 원고가승소하여 식산은행이 한판을내이게되엿다

소송의내용은 평양의전출신의 리태교는 평양부계리(鷄里)백십팔구번지에 별려잇는 김두희소유의가옥을 부의유모(乳母)과가티 빌녀가지고개업을햇든바 작년십이월사일 리태교는 원고김두희명의의 인감을위조하여 전긔가옥과 토지 상점을 자긔가 산것처럼 계약서를 위조작성하고 이것으로 동월 륙일 평양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이동등긔수속을 완료한후 식산은행 평양지점에 칠천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오천칠백원을 내여가지고 다라난 사건으로 리태교는 아직 체포되지 안햇다 한다

氷上大會盛況

【滿浦】평북만포에서는 처음개최되는 제일회빙상경기대회가 지난이십이일 정오부터 당지청년회주최로 세검정하(洗劍亭下)압록강 빙상에서 대회장 김관진(金官鎭)씨 개회사로 시작된바 선수삼십명이 참가하야 천여명관중의 열렬한성원과 환호리에 경기를맛춘후 상품수여식이 잇섯다 한다

統營에食刀强盜

現金六十圓强奪逃走

【統營】지난 이십일일오후구시경 경남통영군일운면 장평리(統營郡一運面長坪里)농업 번성관(潘成寬)(三三)의집에 나히 약삼십여세되여보이는자가 얌의칠가량되는 식도(食刀)를 들고 침입하야 주인을협박하야 현금륙십원을 강탈하야가지고 어대로 도주하얏다는데 이급보를 접한 통영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서원이 총출동하야 현장을 림검한후 범인수사에 맹렬히활동을 개시하엿스나 이십일일까지 아즉범인의 행방을 알수업다한다

鐵道工事場에서 人夫一名慘死

【大浦】동해안 선철도ㅣ간성역(杆城驛)을기점으로 양양속초항(束草港)까지의 연장인 토성면룡촌리(土城面龍村里)부근 공사장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 산을파메우던 인부한명이 사태에못겨 무참히도 즉사하엿는데 그는본적을 경상북도 밀양군(密陽郡) 밀양면에둔 김봉갑(金鳳甲)(三三)으로 판명되엿다 고한다

大火罹災民爲해 同情金品의遝至

【筏橋】시가지한복판에잇는 암곡제승공장(岩谷製繩工場)발화로 상점십칠호가 전소되는 가운데 녀자두명이 타죽엇고 남녀두명이중상을당하엿스며 소실된 상점물품등의 피해가 십만원이상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불의의참변을 당한 피해자중에 아주극단에 달한 일선인 삼십륙명을 공동구제하는 인과가운 참경에 끌인 인정미의결정이 쏫주되여 때 이십륙일오후까지 취합된 것、이다음과갓다한다

筏橋普通學校職員及學生一同十二圓 尋常小學校生徒一同二圓 私立私明學校職員及學生一同十二圓 消防組員一同二百圓 筏橋金融組合理事員一同十圓 朴道淳 合理事兒玉晋吉十五圓 電氣株式會社十五圓 生馬農場十五圓 商工會三圓 殖銀支店十五圓 筏橋驛 村上胤各二十圓 梁在誠十圓 朴熙鎬二圓 日名子數多五圓 徐琪淳 曺萬壽 森分春夏 森谷君雄 坂本豊太 矢野順太郞 中本兵衛衛 橋本松太郞 森下留治 前川文平各十圓 村上正二十圓 柳山只市五圓 八嶋吉次郞 爲津覇一各二圓 中島辰三郞五圓 淸家美智惠三圓 東野利一郞五圓 林傳示二圓 藤井珍作一圓 本多勝松五圓 宇野珍六 大橋重三郞二圓 山崎軍正一圓 井上和夫二圓 杉原友秋 田中尙亮 藤井珍作各一圓 林傳示二圓 岡島出張所五圓 山本勝衛一圓 東野藻太郞二圓 小河榮 貝塚寅市各三圓 堀覺一郞二圓 高橋金次郞五圓 吉田寅三五十錢 金士允三圓 崔在鎬二十圓 平野敏太郞三圓 姜益煥二圓 徐正瑚五十錢 安載喆二圓 李敬永二十錢 宣昇浩三十錢 川口藤三郞二圓 紀道純五十錢 韓在分五十錢 金相浩 李鍾酌各一圓 李鍾柱 李容比 朴英道 共榮商會各五十錢 具致馨三圓 黃鎬二二圓 商鮮旅館五十錢 高瀨千代三圓 原田忠二圓 安達顧太 桑村ヨシマ 東龍作 山田留一各一圓 上木竹松 湊松太郞各二圓 岡島シモ 蔡東明 金命煥 朴奉彦 張仁玉各一圓 鄭錫完二圓 崔學彦 金宰杓 仁興利各一圓 德泰樓五十錢 洪榮眞二十錢 義勝永一圓 權一榮五十錢 淸家旧灣部一圓 尹忠赫二十錢 實費洋服店五十錢 宋基善二圓 洪東遠二十錢 慶南旅館十錢 庾東鎬二十錢 光玉旅館五錢 山本兄弟商會五十錢 金錫宗一圓 天一洋靴店五十錢 高天受一圓 金得洙 金良述各二十錢 任俊采十錢 金萬植二十錢 嚴貴淑十錢 金有卜二圓五十錢 白漢淳 金基俊各二十錢 張基云十錢 金永根五十錢 金龍福一圓 吳判斗五十錢 李圭綱十錢 李勤烈五十錢 金載南一圓 李東煥 木の下材木店各五十錢 李宗遠十錢 趙龍基十五錢 姜大澤十錢 吳判石五十錢 金千浩二十錢 金正大一圓 安德煥 尹基子各五十錢 徐在弘二圓 金淳煥 金又煥 徐珉燦 金春文各一圓 崔明華二十錢 池龍洙 金吉竝 東成茂 李谷采 姜正洙各一圓 黃祐哲 福盛長 東城商會各五十錢 鄭錫東一圓 金基玉衣服二件 酒一甁 金泰術一圓 劉基烈五十錢 崔歡鉉白米一斗 金京洛三十錢 申英子二圓 徐在弘藥一甁 筏橋駐在所職員一同白米五升 姜正洙一圓 劉龍淳 金萬五 孫永植 張元順各五十錢

大德鑛山主의特志

【平壤】『골드랏슈』의 물결은평남각지에서 넘치어 각금광산에서는 사고가 속출하고잇서 만흔 희생자가 생기고잇는터이나 광주들은 광부들의 특별한우대방법을 강구하는례를 듯지못한 이때에 성천(成川)군하의대덕광산(大德鑛山)경영자 리면균(李冕均)씨는 동광산의 산금매상고의 천분의일을 적립하여 사고맛나는 백륙십명광부의 구제금에 충당하기로 되엿다 한다

咸興都市計畫과 工費捻出問題

─咸興府의頭痛거리─

【咸興】대함흥도시계획안은 이미인접면편입에의정안도 결정되어 금년내로는 어김업시 실시되리라는데 그중에서 제일선결문제인 함흥역(咸興驛)의 이전비만 일백이십만원정도며 총합계적어도 삼백오십만원은 소요될터인데 이러한방대한경비가 과연어데서널출될는지 지극히주목되며 부당국에서도 총독부에신청함을 압서서 비상이 두통중이라고한다

新春부터病魔跳梁

興南의傳染病禍

昨年中天然痘患者만五十에 今年드러벌서四十名

【興南】작년부터 끈이지아니하고 흥남전시에는 각종전염병으로 대공포를 늣기고잇는데 그중에 더욱심한것은 천연두엿섯다 작년중에 흥남읍의손을거처 격리병사에 수용된것만도 일백오십칠명 그중에서 전치된사람도 잇섯스나 대부분은 이서무운 천연두에 죽엇다한다 그리고 금년에잇서서 그세더욱 맹렬하여 근간에는 매일사오명의신환자의 계출을 보게되는바 벌서 금년중에 환자가 사십여명에 달하엿다하며 그외에도 가정에서 몰래 치료하는것도 잇는듯하다고 한즉 그정확한 수효는 알수 업슬것이나 엇더튼 흥남에 천연두는 작년보다 더욱 심한 형세로 전연되고잇는것만은 사실이라 한다

災地寧遠郡下에도 天然痘가大猖獗

廿八日現在患者五十

【平壤】평남녕원군일대(寧遠郡一帶)에는 일월초순경부터 천연두(天然痘)가 발생하여 도와군위생당국에서는 방역에 노력중이나 조금도 효과업시 더욱창궐하여 이십팔일 현재에는 환자가 오십여명에달하여 일대는 공포상태에 빠젓고 사망자도만흔터이다

전일의 얼골어엽부든 처녀나 색시가 지금에는 모양창피한얼골로 변해버리는것도 기막히는 사실이거니와 사망자가 만키때문에 일반은 더욱경계할 필요가잇다고 생각된다

飛行時間變更

【裡里】경성리리간의 우편비행은 착착 그효과를나타내고잇는데 그발착시간을 지난 이십오일부터 전과와가티 변경하엿스며 오는사월부터는 소호 려객까지도 취급한다고한다

飛行機發着時間

京城發前十一時 裡里着午後零時三十分 裡里發後二時 京城着後三時三十分

波瀾만흔大同組合 存廢問題가또擡頭

一般은그의結果를注目

【豊川】황해도풍천읍에는 일용잡화등을 포목등의 소비자본위(消費者本位)의 상업긔관이업슴이일대 지방적중대 문제가되여 당지면면인사의 발긔로소화륙년팔월에 대동조합(大同組合)이란소비자본위의 긔관이 설립되여 조합원 근오백명을 산하게되엿고 근방농촌에서까지 열렬한지지미테 설립초년도에는 예상이상의 조흔성적이 발휘되여 조합원은물론 소비대중으로서도 장래의 장족적 발전을 긔대하여오든바 삼년재되든해 륙월부터 이개월동안을 점포문을 잡그고 복잡다단한 가운데 조합역원들의 진정분려과 지방소비대중의 운동으로 동조합장 조종록(趙鍾祿)씨에게 다시금 조합경영의 일체권리를 일임케한후 최후로조씨에게 유익교섭의원 제씨의 간곡한 요구에 조종록씨는 다시금점포문을 열고 자금을동자하여 이래이년간을 존속하야오든바 돌연지난 이십륙일부로 동조합대회를 이십구일 오전십일시에 조합사무실에서연다는통지를 총대들에게 발부하엿는데 그통지에 적의사항을보건대

一、組合決算報告의件

一、組合事業存廢의件

一、其他

등이인바 조합총대들은 이에 놀내여 그날의회합을 기다려 선

南京軍官校出身 盧壽根君長逝 廿六日南京에서

【豊川】황해도풍천출생으로 일즉이 고향을떠나 멀리 해외에 유학하든 로수근(盧壽根)(二七)군은 불행히 지난일월이십칠일에 중국남경려사에서 장서하엿다는바 동군은 남경군관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고 그곳에 체류하며 장래를위하여 애쓰든 용감한 청년이엿다 한다

學年延長運動 玉龍公普期成會서

【光陽】옥룡면공립보통학교(玉龍面公立普通學校)는 총내 사년제임으로 사학년을 졸업하고나와서는 대부분 취학할 길이업서서 이곳 저곳으로 방황함으로이를 우려한 학부형들은 동

딸이失行을悲觀 夫婦一時自殺!

◇…熙川郡서생긴家庭悲劇 ─잘나면"보배"못나면怨讐─

【新義州】사랑하는딸때문인하야 부부(夫婦)가 목을매여 자살한 가정비극한막! 희천군장면 서관동(熙川郡長面西關洞)일백이번지 농업 김윤래(金允來)(六二)의 사녀 중녀(仲女)(二七)는 근처에사는 량원태(梁元台)(二四)라는 남자와 정을통하야 임신까지하게되엿것을 알은 어머니인길락보(吉洛寶)(五七)는 세인의이목이 부끄러워 한악과 칠으로금면경월십사일 락태시긴것을 촌장(村長)의 투서로 말미아마경찰에 탐지되여 감옥의 신세를 지게되엿슴으로 이런욕을 보느니보다는 죽는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지난이십사일 오후구시경 자긔집뒤간에서 목을매여자살하엿다

이를목도로 비관한 그의 남편도 먼저간 처의뒤를따라 이십륙일 거동 내침(內寢)입구부근의 버들나무까지에 목을매여 죽엇다한다

怪盜出現頻頻

【牙山】지난일월이십팔일 오전두시경에 온양온천(溫陽溫泉)온정당시계포에 괴한일명이 침입하여 시계오개을 절취하여가지고 그의일에 모상점에서 동일한수단으로 외투한벌과 기타물품을 절취하여가고 또오륙일뒤의 일본내지인모상점에서 현금팔원을 절취하엿스며 그뒤로 일개월간에이삼처에서 조난을당하엿다는데이상한것은 새벽두시경이면 이와가티 절도가횡행하여 인심이자못불안하다하며 당지온양경찰서에서도 일개월동안에 철야수색을하는중이나 아직까지도 체포치못하여 우려중이라고한다

草溪地方에麥凶

有의酷寒과積雪로 麥芽가全部凍結되여

【草溪】경남합천군 초계면(草溪面)일대에는 이십여년래 처음보는 혹한으로인하야 중요작물의하나인 대소맥(大小麥)작이 우려되든바 금번히유의 대설(大雪)까지 나리게되여 이백구십오만팔천사백여평의 대소맥이 전멸되여 금년도 풍작을기대치못하리라고하야 일반농가의 인심은 극도로 불안중이라고한다

朝光 三月號

實益과趣味와各方面의記事와特別畵報等滿載

斷然朝鮮雜誌王

號마다絕版、또再版도絕版되는「朝光」은三月號의內容을봐야眞價를알수잇스니 果然誌界의先驅者

不日發賣

即速注文하라! 定價三十錢 地方郵稅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鮮日報社出版部

"米國新農業法案" 不遠에成立될形勢

지난一月六日 米國聯邦大審院에서 違憲이라고 判決된 農事調整法의 代案으로 同月卄二日議會에提出된 土壤風化防止案을 基礎로한 新農業法案은 二月十五日上院을 通過 同卄一日에는 修正附로 下院도通過하엿다 下院의修正案에對하야 上院側에 異議가잇는結果 兩院協議會가되야 審議中이더니 卄五日에 兩院의 妥協이 成立하엿다 協議會案은 再次兩院의 本會議에서 그同意케되면 署名을 엇기爲하야 빨리 大統領에게 提附케될것이다고 傳하며 新農業法案의 實施도 不遠하다고 觀測된다

×

먼저 兩院協議會를 通過한案의 內容을 槪述하면 新法案은 '土壤保全及國內配定法'이라하고 처음二年間은 土壤風化防止를 基礎로한 農村救濟를 聯邦政府의일로하고 二個年後는 聯邦政府의 農産物統制案을 採用하는州에對하야 本法에基한 助成金을 支給하는 恒久的統制計畫을 內容으로한것과 右統制計畫은 土地의使用을 商業的農産物에서 土壤을保全키爲한 作物植付에 轉換케하라는것이다

×

具體的으로말하면 먼저 一九三七年十二月까지 土壤風化를 防止하라는 土地使用을基準으로 年額五億弗을 超過치안는範圍의 補助金을農家에 支給한다 一九三七年十二月卅一日以後는 右基準뿐아니라 農産物의 供給安定, 農家의購買力維持等도 基礎로 補助金을支給할수잇게하고 또各州에서任意的協力計畫이 整備되는境遇는 어느때든지 곳 一九三七年十二月卅一日以後와 가튼基礎우에 補助金을 支給할수잇게되엿다

그러고 兩院協議會案에는 下院에서 可決된 消費者保護에 關한修正條項, 小作人, 사크롭퍼-等利益保護에 對한農務長官의 權限에關한 修正條項等도 採擇되엿다고 傳한다

新農業法案은 風化水蝕의 念慮잇는 土地의 保全을 期키爲하야금此等土地에는 農家로하여 商業用에 供하는農作物을 植付치안코 土壤保全의目的에 適合한 作物을植付케되다는것으로 此等의土地에植付할수잇는 綿花小麥, 玉蜀黍等重要農産物을 植付할수없음으로 結局 重要農産物의 段別減少, 따라서 生産縮減이 計畫되는것이다 土壤保全에關한 法律은 昨年議會를通過하고 同年四月二十七日 大統領의 署名을 거처서 이미 實施된것인데 이번의 法案은 右法律全文六個條에 對하야 第七條以下의 規定으로 前記와가티 農家에對한 補助金交附等을한 諸規定을 追加한것이다

新法案의 實施에 依하야果然 엇마큼의 農産物段別縮減이 될는지 農調法과 同樣의 效果가 잇슬는지 이것은 新法案에基한 政府의 具體的計畫도 判然치안흔 오늘에잇서 豫斷을 不許하나 新法案에基하야 段別縮減은 農調法의境遇와 同樣의 農産物過去의 段別을 基準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農産物의 科學的栽培와 販賣上當然한 耕作地帶가 享受하는 最大의 利益을 示하는 作物栽培의 程度를 基礎로 한것이다 따라서 生産調整이라고할보다 綿花, 小麥, 玉蜀黍等의 農産地帶一帶를 한데몽친 調整計畫이라고 말할것이다 또 農調法에 依하면 農家가 그 耕地에 아모것도 植付치 안흠으로써 所謂 減段補償金을 支給하는것인데 新法案에 依하면 農家는 土壤을 保全키爲한 何等의 工作을하야 이로써補助金을交付케될것이다 그리고 補助金을 支給함에는 當然히 聯邦政府 新規支出을 要하나가티 이에對하야 農調法의加工稅와가튼 稅金을 復活케할가, 或은 增稅等의 方法에 依할가 政府로서는 이點이 아직도考究中이라고한다

商取引全然杜絶
朝鮮、日本內地通信連絡不能
月末受渡에大支障

日本內地朝鮮間의 商取引은 通信連絡不能으로 二十六日以來全無한 狀態이다 더구나 淸算市場關係의 商品은 全然取引이 못되야 月末受渡에 直面하야 大支障이 생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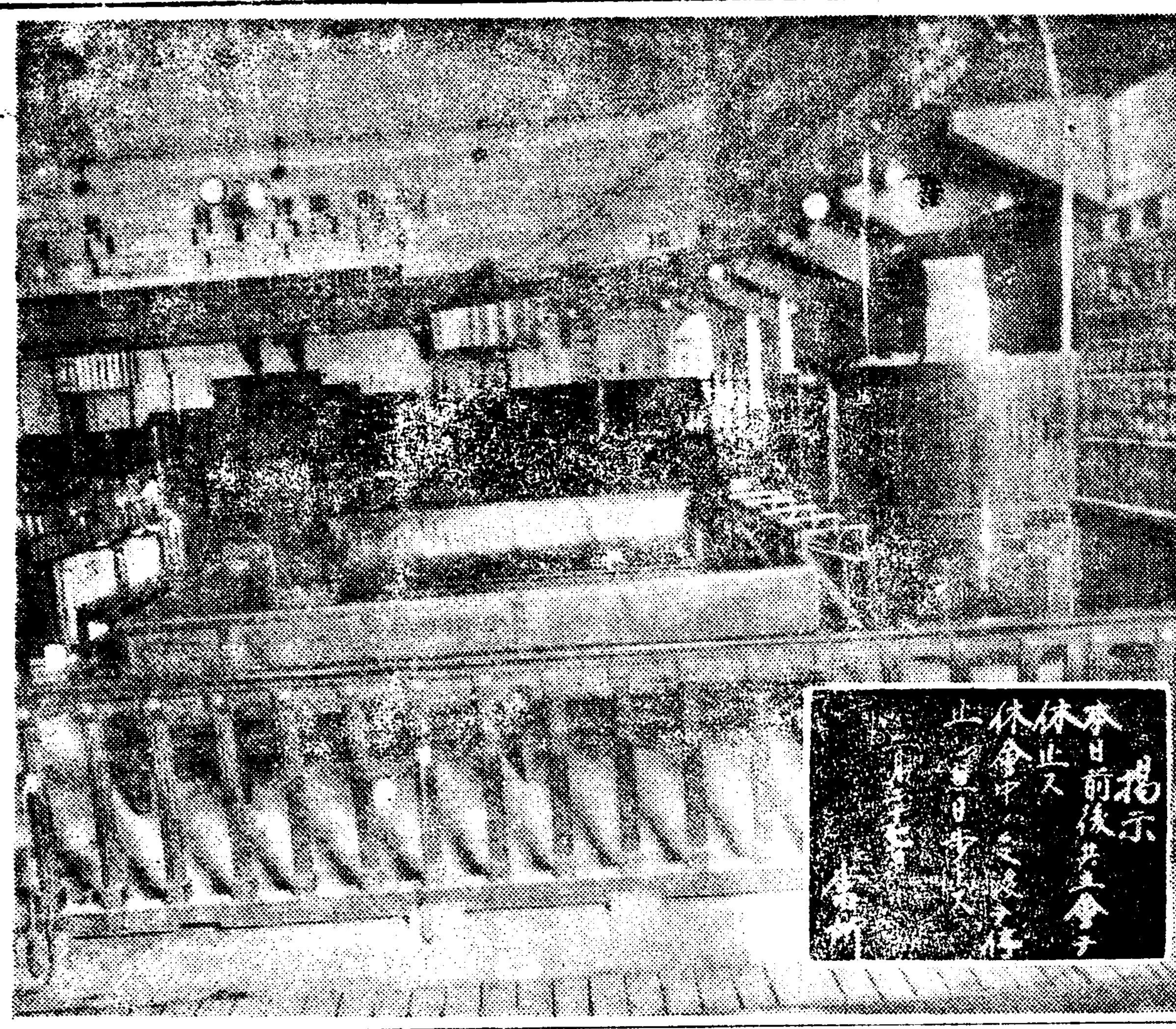
東京市中各銀行 自然休業狀態
交通機關의杜絶로

【東京電話電通】日本銀行을 비롯하야 一般市中銀行方面는 二十九日로 平常대로 開店營業할 方針에는 變更이 업스나 舊市城內의 全部가 交通이 遮斷된結果 事實上 營業不能의 情勢에 빠젓다고한다

【東京電話電通】二十九日丸內비지네스센타의 各銀行會社는 早朝부터의 東京市電及其他各交通機關杜絶의 結果社員等이 參集치못하야 모두自然休業하엿다

東京手形交換所 ◇…交換을臨時中止

【東京電話電通】東京手形交換所는 二十九日 市內全部의交通이 遮斷된結果 事實上 交換不能케 되얏슴으로 不得已交換을 臨時中止키로 되엿다고한다



▲…休會中의 朝鮮取引所 證券部內와 休場揭示 (檢閱濟)

大阪手形交換 平常대로한다고

【大阪電話電通】大阪手形交換所에서는 二十九日 持遲委員會의 結果 가장主要의 一部에 兵火의 變이 생겻스나 이것은 一少部分에 限한것임으로 斷然交換을 할것이라 東京手形交換所도 아마 交換을 實施키로되엿스며 또 大阪組合銀行에서도 平常대로 營業을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公社債價區區

▲뉴욕【뉴욕二十八日發同盟】뉴욕의 日本政府 公社債는 二十八日에 氣配가 小康이며 六分半利付 政府公債는 半弗 五分利付는 一弗四分一이 反騰하엿스며 一面新社債類은 高低區區이엿다

▲倫敦【倫敦二十八日發同盟】倫敦株式市場의 日本公社債類은 二十八日도 大勢軟調를示하고 그中 五分半利附政府公債는 八十一磅으로 一磅이 崩落하엿다 그中에는 四分利付第一回公債는 六十磅에 保합되엿고 또 一般新社債도 大勢保합乃至四分一磅低를示하엿다 東京電燈債는 八十八磅으로 半磅의少高를 示엿다

下旬易旬報 二日發表를延期

【東京電話電通】大藏省에서는 二十九日 發表할二月下旬貿易旬報를延期하고 來月二日月曜日에 發表키로되엿다고

米日爲替는 十四仙暴落
◇…朝銀建價는不變

二十九日入電 海外經濟 米日爲替는 二十八弗 九十六仙으로比前日十四仙의 暴落이엿스며 朝銀建價는 前日과不變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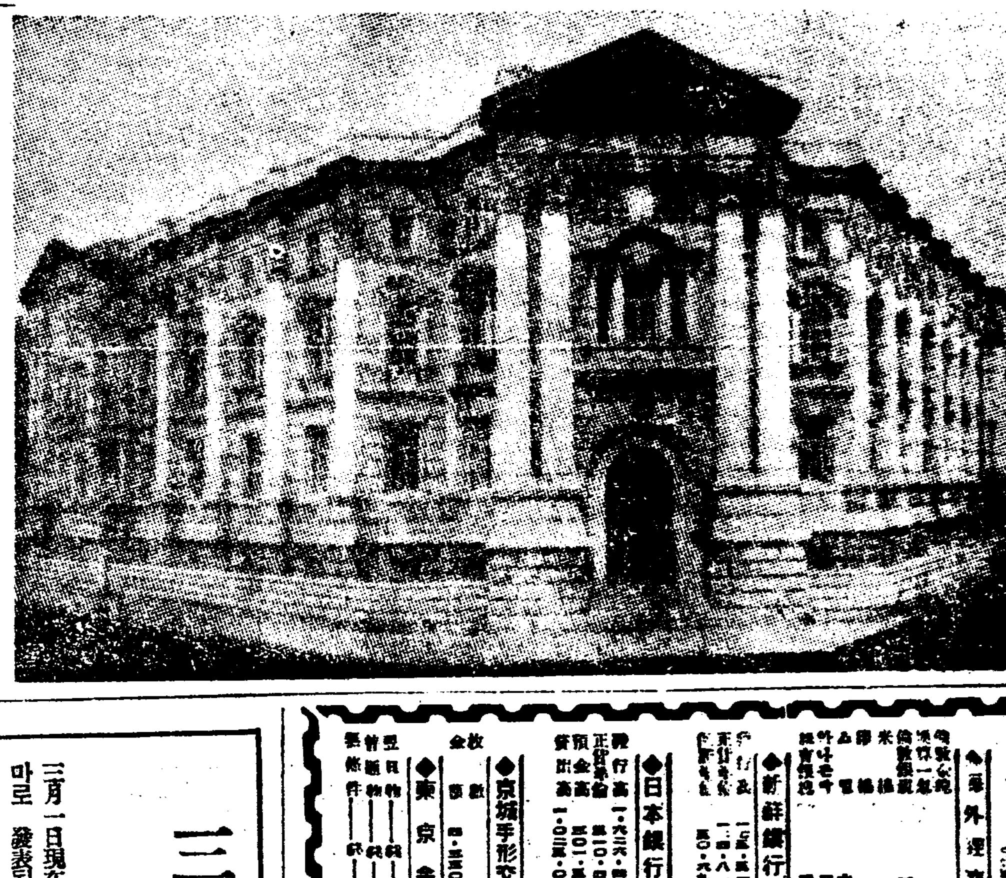
▲大阪爲替(廿九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四分三	二十八弗八分七
對英	一志二片八分七	一志一片十六分十五

(東京爲替不明)

正金銀行에서는 "後門"을열고取引
依然建價不變으로

【東京電話電通】正金銀行은二十九日 午前十時부터 後門을열고 取引에 應하엿스나 依然 對英一志二片 對米二十九弗로아르세로딘스펠-트(爲替手形引受)를拒絶하엿다



▲……[illegible]에注力하는 橫濱正金銀行 (檢閱濟)

京城市中地金 賣買全無狀態

京城市中地金市勢는 二月上旬以來今冬의 記錄的寒氣襲來로 各鑛山의 産金全滅狀態에 依하야 今月中旬以來 去來不振인데다가 二十六日來의 日本內地情報未着으로 市勢不立이오 今朝의 暗氣配는 先高豫想으로 賣價十二圓五十錢 買價十二圓이나 取引皆無의 狀態이오 當分正確한市勢가 서지못하는모양이다 二十九日의 氣配는 如左하다

	買	賣
純金	一二、〇〇	一二、五〇
廿二金	一〇、五〇	一一、九〇
二十金	九、五〇	一〇、九〇
十八金	八、四〇	九、九〇
白金	一二、五〇	一四、〇〇
銀	一五	一九

昨年産組
新設廿六組 繼續十六組

十年度國費補給 産業組合新設은 最近各組合의 모두成立을 곳내엇는데 組合數는 九年度繼續分 (補助金一萬二千三百五十圓)十六組合 十年新規(一萬五百圓)十組合 計卄六으로 各道의 設立은

▲繼續 京畿三 全北一 慶北一 慶南七 黃海二 平南一 平北二 咸南一 咸北一

▲新規 京畿二 慶北一 慶南五 黃海一 平南一

北中農業開發 融資會社를計畫

【天津二十九日發電通】北中經濟開發에 關하야서는 昨年來 具體化되엿스나 적고 今日에 至한바 今回 日中合倂으로 資本金二千萬元의 融資會社創立의 機運이 濃熟되는중이다 同會社는 北中 農村을 更生키 爲하야 먼저 棉花改良增産을 主眼으로하고 各地에 合作社(産業組合)을 設置케하고 그 指導와 融資를 行할것으로 北中의 實情에 卽한것이라하야 그 成果를 期待코잇다한다

十八銀支店行員 殖銀其他에全部就職

殖銀에서買收한 十八銀行朝鮮內九支店의引繼는 二十九日 京城本店에 龍山, 新龍山의三支店은 本店에서 其他는 各各所在地各支店에서 行한바 行員九十四名中 十八銀行의 事情에依하야 長崎本店에 歸行한사람과 本人의自由意思에依하야 勇退한사람은 十七名으로 殖銀에서 朝鮮製鐵(三名) 貯銀(十名)에 斡旋한사람은 十三名으로 結局 殖銀에서 採用한사람은 六十四名이다 이것은 傭人이라도 停年以下의사람은 全部殖銀에서 引繼하야 買收로因한犧牲者가 한사람도 업다고

鱈粕新協定會議는 一向異議가相當
當局者는折衝案으로

鱈粕新協定會議는 廿八日午後에 解決을보지못하고 廿九日午前은 休會 同日 午後一時半부터 續開되엇는바 生産者側의 主張은 어디까지든지 直賣, 委託兩制度를 採用하되 生産者側이 水産組合聯合會 中央部를 結成하야 獨自的으로 直賣할수가 잇는 境遇에는 契約을 解除할것을 前提로하야 協定을하자는것 三菱側은 直賣, 委託制를 採用하는 境遇에는 總生産高에 對한 兩者의 數量을 決定하고 期限을 三年間으로 하자는것인데 이兩主張을 土臺로하야 總督府殖産當局의 折衝案도 서잇는모양으로 今明間解決을 보리라고한다

人絹休錘의 擴大無所用
依然不安이繼續

四十日間에 亘하야 苦心에싸히어잇든 人絹絲需給調節案은 旣報한바와 가티 二十日小委員會에서 成案을 決定하야 二十五日 總會에서 討議決定되엇는데 그 効果에 關하야는 全然 期待할수가 업다고 한다 卽 一般關係方面에 大體豫定되는 四、六月의 需給數字를 들면 다음과 갓다 (單位千封)

月別	會員會社生産能力	非加盟側生産能力	消費高
一月	二三五	二六	一九五
二月	二三五	二七	[illegible]
三月	二五一	三一	[illegible]
四月	二六一	三四	二一〇
五月	二七〇	三〇	二一五
六月	二八九	四六	二二五

一割操短일에 一月의 實績에依한 逆算으로 各月의 生産能力을 豫定하고 이것을 基礎로 하야 推算하면 四、五、六月까지 順次 新規操業을 하는 第二帝人及 倉敷絹織中國工場 旭벰벨그의 一部擴張에 依한 運轉데수를 推算하면 大體聯合會員會社의 六月末生産能力은 二十八萬九千封에 達하며 他方 非加盟業의 能力도 昭和人絹以外에 三、四、五月의 出雲製織、岸和田人絹의 順次操業開始로 六月末은 最低限度로 四萬六千封이되어 그生産能力은 六月末은 三十三萬五千封에 達한다

그리고 一面消費는 이와 倂行的增大가 困難한것으로 一月의 消費內容을보면 日本內地向織物八萬封 輸出用 四萬五千封 輸出織物의 原絲換算七萬封 合計十九萬五千封으로 推測되는바 그中 原絲及織物이 모다 輸出은 海外의輸入制限策에 依하야 二割以上의 增加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고 日本內地用도 需要期의 第一步를 내어노핫다고하지만 이것도 亦是顯著한增加는 바랄수가 업는것으로 六月의 需要豫想은 于先 二十萬封 乃至 二十二萬五千封以上은 어려울 모양이라고하다

×

以上과 가티 需給數字로보면 生産能力過剩은 顯著한바 또 非加盟社의 自由生産結果는 이過剩能力에 對한 限産決議를한 聯合會員會社에도 關係되는것이다 이에 對하야 需給의 均衡을 保持하라고하면 操短率은 一月 一割三分 二月 一割四分 三月 二割六分 四月 三割 五月 三割一分 六月 四割로하야 이것을 平均三割一分을 絶對로 必要로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번決定의 操短率은 三割이어서 眞實한 需給均衡을하는데는 一割의 分量産率의 不足을 보게될것이다

×

이것도 從來需給狀態가 改善되엇다고하면 모르거니와 聯合推定에 依하야 보아도 原絲及織物의 原絲換算合計를하야보면 十五萬乃至 十六萬의 巨大한 滯貨를 보게되는 現狀에 잇서는 到底히 그것으로 狀態의 改善은 期待키 어려운 狀態이다

그러나 以上은 聯合會가 正히 보고하는말이나 그決議를보면 極히 疑點이 만흐며 需給의 限産介表를 文字대로 嚴格한 供給制限은 到底히 머들수업다 卽 關係各方面으로부터悲觀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今回도 單히 操短만을公表하야 그基準이되는 据付錘數에 對하야는 依然極秘에 附함으로 一般의 不安은 到底히解消되리라고 볼수박게업다

×

그러고 三月 分에 對하야 規定의 二割封鎖 以上 으로다시 强化案을 講究한다고하야도 그方法은 結局共同保管과 同樣으로 그것만 市場에 追하며 오게되다 이것은 要컨대 이번決定의 需給調節案은 當初부터 絲價對策에 關하야 確實한 決意도업슴으로 勿論그 需給推定과 가튼것은 一致하지안는다 다만 販賣되지안는 舊六月物을 賣約하라고하는 當面의 經濟的見地에서 나온것이어서 本質的으로는 信賴할 수업다 市場의 前途는 四、六月物의 絲價對策 決定으로다 因하야 도리혀 悲觀되고 다시 六月以後에도 强行되는 各調 七、九月物의 對策樹立은 全然어렵다고하야 絕望하는 狀態이라고한다

三月一日在米量
◇…目下推定內容

三月一日現在의 在米量이 얼마로 發表될가함이 오늘에잇서 注目을 끄으는點이다 따러서 이에對하야 여러가지의 觀測이 傳하는터인데 昨年十一月以後 今年二月末의 供給量을보면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石)

持越高	九、九四〇
實收高	五七、四五〇
朝鮮米移入	三、九二〇
臺灣米移入	一、七〇〇
計	七三、〇一〇
消費高	二七、五四〇
輸移出	二〇〇
差引殘高	四五、二七〇

朝鮮米移入高는 二月中旬까지 三百七十二萬石임으로 이곳에 下旬을 卄萬石으로잡고 三百九十二萬石으로 推定하고 臺灣米도 豫想數字이다 一面消費高는 于先前年度와 가튼것으로 假定하면 差引四千五百二十七萬石으로 되고 이것이 三月一日在米高로되야 前年度의 四千六百四十八萬石에比하면 百二十萬石의減少이다 그러나 이곳에 考慮할것은

(一) 昨年九、十月에 빨리 秋收한곳에서는 早食한傾向이잇고

(二) 屑米가 前年度보다 적어 이方面으로본 消費의 增加

(三) 人口의增加

(四) 持越米九百九十四萬石의 課算

等인데 그項中 (一)과 (二)가 가장 檢討할點으로 新米의 早食을 百萬石乃至百五十萬石으로 잡으면 큰틀림이 업슬것이다 屑米減少로因한 消費增加其他를 考慮하면 적어도 二百萬石乃至 二百五十萬石程度의 消費增加를 豫想할수잇다 以上의 觀點으로하면 結局三月一日 在米高는 四千三百萬石에서 三百三十萬石으로 推定할수잇고 前年度에比하야 三百萬石以上의 激減이 豫想되다 만약 이推定에 큰틀림이업다고하면 三月以後 十月末까지의 需給狀態는 매우 不圓滑을 보게될것으로 端境期의 接近을 따러서 前年以上의 在米不足을 나라내게되지안흘가하는 터이라고한다

仁川石炭入荷 京城에는約入割

昨年中의 仁川에 輸移入된石炭은 日本內地炭十三萬二千三百七十五噸 撫順炭四萬六千百八十九噸으로 日本內地炭中 가장만흔것은 中鶴炭一萬四千九百八十二噸 豊國炭一萬二千五百十三噸 早良炭一萬一千百十八噸等 七十三銘柄에達하며 其中約八割은 京城에 入荷되엇다한다

朝鮮無煙炭總會 年九分配當可決

朝鮮無煙炭會社에서는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京城本社에서 定期總會를열고

一、昭和十年下半期 諸決算案承認의件

二、同上利益金處分案議決의件

三、取締役全部任期滿了에對하야 改選의件

을附議한結果 一、二號案도異議가업시 可決하고 三號議案은 全部重任을 決定하고 同三十分에 終了하엿는데 株主利益配當은 年九分으로되엇다

東拓總會流會

東拓定期總會는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東京本社에서 열릴豫定이더니 流會가되엿모양이다 朝鮮支社에서는 目下本社에 對하야 照會中이나 不明하다고한다

新京油房界前途難

【新京發電話商通】新京의 油房側에서는 昨秋의 特産出廻期以來 多少活況을 呈하는中인데 最近의 實績을 보면 一個月의製産高는 豆粕六四、七二四枚의 五五、三三一九圓, 豆油一八三、四八三斤의 三五、五七五圓으로 主로서 小型物이오 朝鮮方面에 若干、輸出이잇는 以外는거의 地元消費로 將來의 油房側에는 新京이 消費地인만큼 自給自足程度로 海外에의 輸出은거의 不可能이 期待薄이라한다

産業經濟調查會
七部門으로난와 準備
根本大綱具體案作成

朝鮮産業經濟調查會 準備委員會는 二十八日午後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今井田政務總監以下關係局課長出席 明年度 豫算成立에依하야 新設될 朝鮮産業經濟調查會의 根本大綱을 決定하고 會期, 委員, 調查部門及 範圍等에亘하야 具體的準備에 着手키로된바 各研究討議部門을

一、農林水産業
二、工業
三、地下資源
四、金融
五、貿易
六、交通
七、産業敎育

으로分하고 이外에 庶務一切를 司할準備係를 設하야 右部門에서는 各其立場에서 硏究討議의 具體的項目을 作成하고 三月二十日까지에 이것을 보아서 更히委員會總會를 開하고 檢討하야 今秋十月本調查會를 開催하고 四十名의 權威가 一堂에會하야 審議하고 産業朝鮮今後의 最高指針을 樹立할터이라한다

京仁陸運無配

京仁陸運은 今月一日부터 合同에 依한 營業方針으로서는 二個年間은 無配當으로 進하고 利

經濟界消息

○殖銀支店設置認可＝殖産銀行에서는 이번의 十八銀行買收에 伴하야 新舊龍山에 各各出張所를 開設한바 다음에 曩者申請中의 全南羅州支店設置는 二月二十九日付正式 認可되고 다시 江原道長箭에 支店設置申請中으로 不日中 認可될모양이라고

殖銀人事異動

三月一日附로 殖銀에서는 人事異動을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命龍山出張所長兼新龍山出張所長 種子島蕃(商業金融課長代理) ▲命龍山出張所長代理 金秉兆(本店) ▲新龍山出張所長代理 吉田榮人(本店) ▲命羅州支店長兼務 小河內浩一(榮山浦支店長) ▲命羅州支店長代理 布施英雄(群山支店長代理兼長項派出所主任) ▲命長項派出所主任兼務 能登利正(群山支店長代理)

朝銀人事異動

朝銀에서는 二月二十九日附로써 人事異動이 다음과가티되엇다

▲命外國爲替課長 大草志一(倫敦派遣員) ▲解外國爲替課長兼務 吉川廉三郞(東京支店支配人兼外國爲替課長) ▲命倫敦派遣員 瀧谷愼治郞(天津支店支配人代理) ▲命仁川支店支配人代理 堀野仙策(開原支店支配人) ▲命開原支店支配人 中居秀雄(大連支店支配人代理) ▲命旅順支店支配人 古賀菊次郞(檢査役) ▲解旅順支店支配人兼務 河口眞(大連支店支配人兼旅順支店支配人) ▲命天津支店支配人代理 兒玉直治(靑島支店勤務) ▲命大連支店支配人代理 八浪嘉一(大連支店勤務) ▲命庶務課勤務 山下兆藏(遼陽支店支配人代理) ▲命遼陽支店支配人代理 太原吉五郞(營口支店支配人代理) ▲命營口支店支配人代理 宇宿敬次(鎭南浦支店支配人代理) ▲命鎭南浦支店支配人代理 望月明吉(旅順支店支配人代理) ▲命麗水支店支配人代理 山田登根治(仁川支店勤務) ▲命調査課勤務 竹內巖(淸津支店支配人代理) ▲命淸津支店支配人代理 成澤簽三(外國爲替課勤務) ▲命外國爲替課勤務 谷田部時次(海拉爾派出所支配人代理) ▲命海拉爾派出所支配人代理 難波信治(齊齊哈爾派出所勤務) ▲命大連支店勤務 色川武祐(奉天支店) ▲命奉天支店支配人代理 野中藤作(鐵嶺支店勤務) ▲命大連支店勤務 本田辰雄(奉天支店) ▲命奉天支店支配人代理 戶口涉(大連支店勤務) ▲命支店課勤務 中山丁(哈爾賓支店) ▲命哈爾賓支店支配人代理 三谷祿(哈爾賓支店勤務)

釜金은 營業의 擴充에 主로 充할 方針이오 將來 當局의 鮮內 三립大合同實現時에 備하리라 한다

朝鮮內米取 新甫再開

立會停止中인 朝鮮內米穀取引所의 立會再開에 對하야서는 總督府殖産局과 米取當局에서도 前後處置를終了하고 準備中인데 大體事態推移도 알게되엇슴으로 新甫發會인 三月二日부터 立會를開始키로되엇다 當日日本內地가 立會停止繼續이드래도 朝鮮內에는 率先立會할 意向이라한다。

朝取市場休會

朝鮮取引所株式, 米豆部共히二十九日도 東西市場에順하야 協議한結果臨時休會이다

東京各市場全休

東京株式, 期米, 綿絲, 人絹, 豆粕, 小麥, 正米의各市場은 二十九日 前後場共히 協議會의結果 休會決定이다

大阪各市場全休

大阪株式, 期米, 三品, 砂糖人絹市場은 二十九日도 臨時休會로決定

大株長期는解決

【大阪電話電通】大阪株式取引所에서는 二十八日評議員會에서 決定한 現行處理案에 基하야 二月限의 再開及 受株申告를 二十八日午後六時까지 受付한結果 受株希望者는 意外로만허서 早渡株中에서 五千百七十株, 合意解株百株, 懷玉八百七十株合計六千百四十株에 達하야 殘玉九萬五千三十株는 四月限에 乘替完了하엿다

大阪三品立會休會

【大阪電話電通】大阪三品市場에서는 今朝八時半頃 商議委員會를開하고 今日立會를 臨時休會키로決定하얏다

全國各市場全休

名古屋, 京都, 岡山, 博多등비롯하야 全國各地各市場은 全部休會이다

橫濱生絲도臨休

橫濱生絲는 二十九日도 商議會의結果臨時休로 決定하얏다

釜山正米小康

【釜山】市場賣物四千叺 需要供給이 略 相當하야 當用向의 精米側이 買氣를 呈함으로 前日比小康이다 定期의 休會로 一般은 依然沈默이다 一等二八、四〇 二等二八、六五 四等白米二二、一二

各地止米暗氣配

◇仁川正米◇ 期米休會로氣配沈默하나마 休日前보다 三十五錢低인 三等二八、三五錢 四等二八、〇五錢이다 群山木浦大邱는 暗氣配로二、三十錢低唱이다

大連銀、特産休止

【大連電話商通】大連銀, 特産兩市場共히 立會中止이다

開米 廿九日

◆大阪市中在米高◆

	玄米	白米
日本內地	五七三四七	一二九四一
朝鮮	五四六一二	三六九一二
台灣	二五九三	三二二

◆海外經濟◆ 廿九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爲替◆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京城正米◆ 廿九日 [illegible]

◆全鮮入港◆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穀類◆ [illegible]

◆京城綿絲布市況◆ 廿九日 [illegible]

◆日本棉業市況◆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鮮滿粕沖價◆ [illegible]

土金 石金 福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八 電話本局四五八六

朝米取株
光皿
康益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康益證券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先金要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株式 玉 期米
柳來恒商店
仁川府本町
營業案內進呈
朝鮮取引所取引員